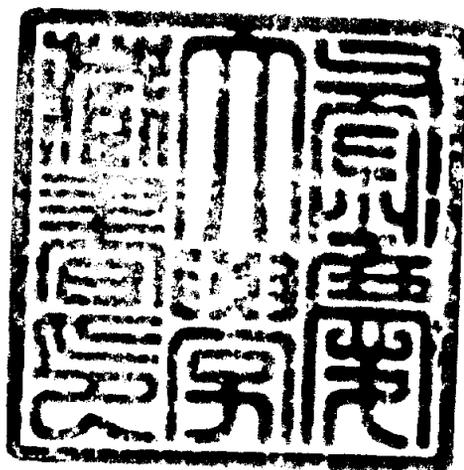


교육학석사 학위논문

풍자소설의 '비판적 읽기' 교육 연구

- 『태평천하』와 「치숙」을 중심으로 -



2002년 8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이 민 선

이민선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02년 8월 일

주 심 문학박사 강 인 수
위 원 문학박사 고 순 희 (인)
위 원 문학박사 송 명 희



목 차

I. 서론	1
1. 연구 목적 및 의의	1
2. 연구사 검토	3
3. 연구의 제한점	8
II. 비판적 읽기의 이론적 고찰	9
1. 비판적 읽기의 개념 및 의미	9
2. 비판적 읽기 지도 내용	13
III. 풍자소설의 의미와 교육적 의의	19
1. 풍자소설의 개념 및 의미	19
2. 채만식 소설의 풍자적 성격	22
1) 『태평천하』의 부정적 인물 풍자	24
2) 「치숙」의 이중부정에 의한 풍자	19
3. 풍자소설의 비판적 읽기의 의의	32
IV. 풍자소설의 비판적 읽기 교육 방법	38
1. 풍자소설의 비판적 읽기 전략	38
2. 풍자소설의 비판적 읽기 모형 개발	42
V. 풍자소설 비판적 읽기 교육의 실제	47
1. 『태평천하』의 교수절차	47
2. 「치숙」의 교수절차	58
3. 교수 학습 모형의 적용	68
※ 교수 학습 과정안	73
VI. 결론	81
※참고문헌	84

표 목차

<표 1> 미적범주	19
<표 2> 미의 사분법체계	19
<표 3> 비판적 읽기 지도 내용 준거	39
<표 4> 비판적 읽기의 하위 범주	41
<표 5> 비판적 읽기 전략을 이용한 읽기 교수학습 모형	44
<표 6> 교수 학습 계획	69
<표 6> 교수 학습 계획	70
<표 6> 교수 학습 계획	71
<표 6> 교수 학습 계획	72
<표 10> 『태평천하』 교수 학습 과정안(1차시)	73
<표 11> 『태평천하』 교수 학습 과정안(2차시)	75
<표 12> 『태평천하』 교수 학습 과정안(3차시)	76
<표 13> 『태평천하』 교수 학습 과정안(4차시)	77
<표 14> 「치속」 교수 학습 과정안(1차시)	78
<표 15> 「치속」 교수 학습 과정안(2차시)	79
<표 16> 「치속」 교수 학습 과정안(3차시)	80

'CRITICAL READING' EDUCATION STUDY
OF SATIRICAL NOVEL
- WITH PRIORITY GIVEN TO THE 『A REIGN OF PEACE』 AND
THE 『*CHISUK*』

MIN-SUN LE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Satirical novel aims to criticize the present age indirectly by showing abnormal characters exaggerating absurdity in aspects of peculiar shaping of character, structure, and literary style, and by distortion grade of contradiction and irrationality broken away from normal standards. So these dual structure of satirical novel need learners to interpret the works actively. That is to say, because satirical novel involves dual qualities of meaning of text by satirical device like irony, readers have to think positively to understand the text. Therefore this thesis aims to observe the education of satirical novel for development of reading ability on the assumption that critical reading, the way that learners internalize literary works actively in methodology of novel education, is effective.

Then I chose the 『A Reign Of Peace』 and the 『*Chisuk*』 printed in the eighteen kinds of highschool literary texts. These are the works of Chac Man-Sik, who is appreciated for author of satirical novel that described on the realities of those days by earnest satire and humor since modern ages. Particularly in the case of 『A Reign Of Peace』, it has some limits in discussing of this thesis because it is a long novel, so I intended to observe teaching plan of novel by critical reading focused on the contents printed in literary text.

In the 1st chapter, by way of introduction, I regarded ultimate purpose of reading as reconstitution of meaning and intended to lay the groundwork for

the direction in internalizing the works by critical reading resulting from 'reflective skepticism' in reading satirical novels. Namely I assumed that systematic approach for the contents of works can be made by internalizing the works resulting from critical reading for positive and active reading course. Therefore this chapter approached the discussion of this thesis showing educational importance of critical reading briefly.

The 2nd chapter considered the theory of critical reading made up to now. By showing the theoretical basis of critical reading of satirical novels through this consideration application of critical reading in literary education can be made. In addition to I picked out the elements that can apply to literary texts in teaching contents of critical reading.

The 3rd chapter observed the meaning of satirical novel and educational importance by critical reading, and discussed satirical characteristic of the 『A Reign Of Peace』 and the 『*Chisuk*』.

In chapter 4, I discussed strategy of critical reading based on theoretical basis showing in chapter three and showed two standards of critical reading, internal standard and external standard, by concrete strategy of novel reading.

In chapter 5, critical reading education of satirical novel is done in reality based on these theories. This chapter showed direct teaching plan that is made up of activities guided by teacher's explanation, exhibition, and inquiry study and activities based on students as teaching-learning plan of satirical novel for the course of critical reading by internal standard and external standard in the literary educational aspects.

Consequently this thesis' 'critical reading' education study of satirical novel is significant because it offers deep understanding and methodology of discussion by active participation of learners on texts. Moreover if educational application of satirical works is studied thoroughly, the meaning that critical reading education of satirical novel have will be resolute.

1. 서론

1. 연구 목적 및 의의

읽기는 독자가 텍스트의 의미를 재구성하는 과정이다. 이는 독자와 글의 내용이 상호 작용한다는 것으로 독자가 필자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 재구성의 과정은 텍스트의 내용에 대한 비평까지 포함한다. 결국 읽기는 텍스트가 말하지 않은, 그렇지만 가정하고, 약속하고, 암시하고, 내포하는 것을 이끌어 내고, 빈 공간을 채우고, 텍스트 안에 있는 의미를 이해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¹⁾

그런데 읽기 텍스트의 종류에 있어 풍자소설은 우리 자신의 일상생활, 특히 같은 시대 사회의 결함이나 병폐 악덕과 우행(愚行) 등을 지적하고, 비꼬아 공격하며 조소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그런 까닭에 풍자소설 교육은 풍자소설 특유의 인물형상화면, 구조면, 문체 면에서 부조리를 과장하여 비정상적인 인물을 작품 전면에 내세우거나, 정상적 규범에서 이탈한 모순·불합리함의 왜곡단계를 통해 소설 내의 이중적 의미 구조를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이는 학습자의 능동적인 작품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소설교육의 방법론에 있어,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작품을 내면화하는 방법으로서 학습자의 적극적 사고와 활동이 요청된다. 그리고 그것을 구현해내는 방법적 측면에서 읽기의 여러 형태 중 ‘비판적 읽기’를 통한 작품 읽기 전략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고는 풍자소설의 해석과 교육적 가치를 모색함에 있어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읽을 수 있는 것이 소설 교육방법론 모색에서 의의를 가진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비판적 읽기를 통한 소설교육을 목적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비판적 읽기를 통한 풍자소설 교육은 소설 읽기에 있어, 외적 형식적 측면과 내적 의미구조 측면을 유기적으로

1) 허재영, 『국어과 교육의 탐색』, 박이정, 2001, p.120.에서는 읽기를 글을 읽는 것 이외에 이해하고 비판하며 수용하는 능력이라고 보면서 읽기는 문자 해독, 이해, 지식 습득 등의 다양한 정신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였다.

연결시켜 작품의 이해력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나아가 문학 작품에 대한 읽기 능력 향상과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루어진 풍자소설에 대한 기존 논의를 살펴보면, 풍자 소설에 대한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져 왔으나, 이를 교육과 관련시켜 학습자에게 효과적으로 교수하고자 하는 교육적 탐구가 부족했다. 그러므로 학습자가 풍자소설을 읽는 과정에서 작가가 제시한 작품의 구현의도와 이면에 숨겨진 의미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작품을 내면화하여 읽는 활동과 전략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풍자소설은 작품을 액면 그대로 수용하고, 피상적으로 이해한다면 풍자소설이 추구하는 의도성을 내면화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본고의 비판적 읽기를 통한 풍자소설의 읽기 전략은 문학교육에서, 학습자에게 소설의 읽기 능력의 신장과 이해의 교수-학습 방법을 제공하는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풍자소설 중 그 대상 선정에 있어, 근대 이후 한국 현대소설사에서 본격적인 해학과 풍자를 통하여 당대 현실을 묘사해낸 풍자작가로 평가받는 채만식의 풍자소설을 논의하고자 한다. 채만식의 작품은 풍자와 해학을 통하여 풍자성과 현실에 대한 비판적 성격을 구현하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풍자성이 가장 강한 작품으로서, 현재 6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18종 문학교과서에 수록된 『태평천하』, 「치숙」을 살펴볼 수 있는데, 이를 연구대상으로 택하고자 한다. 그런데 『태평천하』의 경우는 장편소설이므로 논의에 있어 한계를 지니는 바, 문학교과서에 수록된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따라서 본고의 논의는 다음과 같은 교육적 의의를 지니게 될 것이다.

첫째, 교육적 측면에서 풍자소설의 의도된 방식과 원리의 이해를 통해 대상을 표현하는 여러 방법을 학습할 수 있게 해 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풍자소설은 그 특유의 반어나 해학성과 같은 장르적 성격으로 말미암아 작품의 내재적 측면에서 이중적이다. 그러므로 비판적 읽기 과정을 통해 작품을 수용한다면, 학습자의 능동적 이해, 나아가 비판적 읽기 교육을 가능하게 해 줄 것이다.

둘째, 풍자 주체와 대상에 대한 구조적 인식을 통해 바람직한 비판관계

의 설정과 타당한 비판 기준과 근거를 제시하는 유용한 틀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소설 교육에서는 일관된 원리를 바탕으로 한 방법적 틀이 제시되어야만 한다. 그런 점에서 비판적 읽기의 전략적 특성은 소설의 내적인 형식적 측면과 의미구조의 측면을 연결하여 교육의 원리로서의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이다.

셋째, 바람직한 인간과 사회의 모색은 학습자의 내면화를 통한 교육적 효과와 문학적 소양을 고양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즉 소설의 이해에 있어 내용이 갖는 의미를 탐색하고, 다양한 실천을 통해 적용하고 이해함으로써 작품을 통한 학습자의 내면화 형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면화를 통해 학습자는 작품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새로운 문학적 소양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의 풍자소설의 비판적 읽기 교육 논의는, 현 교육에서 소설 읽기 지도의 중요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것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실제 지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소설 지도 방안을 모색해 낼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사 검토

채만식 문학에 대한 기존 논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채만식 문학에 대한 학문적 연구동향이며, 다른 하나는 채만식 문학에 대한 교육학적 접근이 바로 그것이다. 물론 지금까지 이루어진 논의의 대부분이 채만식 소설에 대한 학문적 접근이었던 점에 미루어본다면, 교육학적 접근을 통한 응용론적 모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채만식 문학의 기존 논의를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교육학적 시각의 접근이 필요함을 제언하고자 한다.

채만식 문학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진 것은 70년대 이후부터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은 몇 갈래로 구분해 볼 수 있다.²⁾

2) 우한용, 『한국 현대 소설 구조연구』, 삼지원, 1990.

첫째, 날카로운 현실인식과 첨예한 비판적 시각의 자각의식 그리고 사회주의적인 진보사상 등 주로 작가의식을 추구한 것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논의이다.³⁾

이는 반영론적 관점에서 작가의식과 관련되는 사회상, 현실반영을 통하여 작품에서 나타나는 현실과의 대응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작품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즉 작가와 관련한 작품창작의 의미와 시대반영 양상과 관련한 채만식 소설의 흐름과 작품 분석적 측면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작가와 관련한 작품을 총체적이고, 유기적으로 작품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많은 논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작가의식과 관련한 현실과의 관계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래서 자칫 작품에서 현실을 추출하는 이데올로기적 가치관을 양산할 우려가 있으므로 소설을 읽는데 있어 작품자체의 특성을 추구하는 존재론적 관점이 아우러져야 할 것이다.

둘째, 채만식 소설의 특징을 풍자에서 찾는 논의로서 일찍이 문학사 정리 작업에서 시작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풍자의 기법을 밝힌 연구에서 비롯하여, 풍자의 정신과 현실인식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⁴⁾ 그런데 이러한 논의는 본고의 풍자성의 문제와 관련된 것

3) 국어문학회, 『채만식 문학연구』, 한국문화사, 1997.

김동석, 「채만식 소설 연구」, 성균관대 석사, 1987.

노수당, 「채만식 소설 연구」, 인하대 석사, 1989.

정현숙, 「채만식 소설 연구」, 인하대 석사, 1989.

최정삼, 「채만식 작가의식 연구」, 원광대 석사, 1990.

우한용, 「채만식 소설의 담론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 1991.

유하수, 「채만식의 소설연구」, 전북대 석사, 1987.

이내수, 「채만식 소설 연구」, 동국대 박사, 1985.

이용규, 「채만식 소설 연구」, 성균관대 석사, 1991.

임학수, 「채만식 소설 연구 - 전통계승의 양상을 중심으로」, 성균관대 석사, 1987.

4) 강금숙, 「한국 풍자 소설의 연구 - 채만식 작품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석사, 1973.

김종현, 「채만식 소설 연구 - 풍자기법을 중심으로」, 중앙대 석사, 1988.

빈용기, 「채만식 풍자 소설 연구」, 원광대 석사, 1986.

으로 주목할 수 있다. 즉 채만식 소설을 풍자성에 의한 현실비판이라고 보고, 풍자성의 의미와 풍자적 기법에 대한 논고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져 왔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특히 이러한 논의는 채만식 소설의 특징을 풍자적 수법과 관련시켜 당대 현실인식과 작가의식을 살펴 보고자 한 논의라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채만식의 풍자 작품에 대한 종합적 검토와 풍자성이 뛰어난 장편 『태평천하』와 단편 작품 등 대해서 작품의 풍자적 가치와 의미 구현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와 검토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논의에 있어 채만식 소설 작품의 일부를 관통하고 있는 풍자적 작품 기조의 흐름과 양상을 살펴본 논의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겠다.

셋째, 작품구조를 통한 인물형상화 양상이나 플롯의 구조에 대한 분석 등과 문체의 서술방식의 양식과 구조를 통한 연구로서, 주로 작품의 내적 구조에 관한 연구가 또 하나의 계열을 이룬다.⁵⁾ 즉 이러한 논의에 있어

-
- 정석곤, 「채만식 소설의 풍자성에 관한 연구」, 원광대 석사, 1989.
 지미숙, 「채만식과 김유정문학의 풍자성연구 -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강원대 석사, 1989.
 윤영옥, 「채만식 풍자 소설의 서사기법 연구」, 전북대 박사, 1999.
 이대환, 「채만식의 풍자소설 연구」, 중앙대 석사, 1985.
 홍석영, 「채만식의 풍자문학 연구 - 장편태평천하를 중심으로」, 서울대, 『선청어문』 23, 1994.
 5) 강덕규, 「채만식 소설의 인물연구」, 성균관대 석사, 1990.
 강성백, 「채만식 소설연구 - 작중인물 묘사양상을 중심으로」, 전남대 석사, 1986.
 김지연, 「채만식문학의 상호텍스트성 연구」, 전남대 석사, 1999.
 김윤만, 「채만식 문학의 배경 연구 - 생장기를 통한 문학의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원광대 석사, 1984.
 김호인, 「채만식 소설에 나타난 성격 고찰」, 조선대 대학원, 석사, 1986.
 김훈택, 「채만식 소설의 인물 연구 - 사회적 갈등과 의식구조를 중심으로」, 성균관대 석사, 1984.
 문현옥, 「채만식 소설의 서술방식연구」, 전남대 대학원, 석사, 1998.
 박노태, 「채만식 소설연구 - 인물 유형을 중심으로」 전남대 석사, 1989.
 최정윤, 「채만식 소설의 인물유형 연구」, 전남대 석사, 1994.

채만식 소설의 구조와 인물 형상화 면에 있어서, 이중적 구조의 문체, 작품을 바라보는 화자의 시각과 그를 통한 작중 인물의 형상화 측면을 살펴보고자 한 논의다. 또한 플롯 설정 구조의 관계와 그의 소설 특징 중 하나인 판소리 사설체의 문체가 갖는 효과 등에 대한 논의가 바로 그것이다. 이는 작품을 구조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작품이 갖는 가치와 의미를 모색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논의라고 할 수 있다.

넷째, 극히 일부이지만 소설 교육학적 측면에 관한 연구로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과 관련되는 기존 논의이다. 이러한 논의는 소설교육방법에 관한 연구, 작품의 인물형상화 양상, 또는 소설사 교육에서 채만식의 소설을 교육적 적용을 통해 다루고자 하는 논의로 현재까지는 그 성과가 미흡한 실정이다.⁶⁾ 특히 이러한 논의는 풍자 소설의 교육적 적용 방안에 대한 연구에 있어 이론적 모색에만 치우친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실제 교육에 필요한 교수-학습 방법론적 문제보다는 채만식 소설 작품에 대한 기존 논의에 그쳐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따라서 소설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실제적 측면과 관련된 연구성과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풍자 소설에 대한 교육적 접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교육적 접근에 있어서는 전략적 모형 개발을 통한 소설 교육 연구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이러한 풍자 텍스트를 소설 교육적 측면으로 교수 학습할 수 있는 지도방향으로는 읽기에 있어 비판적 읽기 교육적 작업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이루어진 비판적 읽기 교육의 기존 논의를 살펴보면, 비판적 읽기의 개념에 대해 학습자가 텍스트를 읽는 과정에서 사고작용을 통하여 작품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받아들이는 논의이다. 이들 논의는 주

6) 임경순, 「인물 형상화 양상을 통한 소설 교육 연구 - 채만식 풍자소설을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 1995.

손예운, 「화자 서술의 특성을 통한 소설 교육 연구」, 서울대 석사, 1993.

지은미, 「소설 교육방법 연구 - '문학' 교과서에 실린 리얼리즘 소설을 중심으로」, 충북대 석사, 1998.

조영식, 「중학교 소설사 교육 연구 - 근대 소설사를 중심으로」, 인하대 석사, 1991.

로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읽기 교육 방법을 핵심으로 하면서 비문학 작품에 적용양상을 살펴본 것을 들 수 있다.⁷⁾ 즉 비판적 읽기가 작품을 내재적으로 분석하여, 시대적 배경, 사회상, 작품의 문체, 구조, 내용에 대해 체계적이고, 비판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읽기 작용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비문학적인 글 - 기사문, 설명문, 논설문, 광고문 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만 치중해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비문학적 글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 조건 조성을 기반으로 한 문학적인 글에 대한 읽기 지도가 더욱 필요할 것이다.

이상에서 채만식 풍자소설의 연구성과를 중심으로 선행 연구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들 논의는 주로 작품과 관련한 작가주의나, 작가의 식 및 작품의 학문적 성과물에 치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에 비해 교육현장에서의 적용하고자 하는 논의가 일부에 국한되어 있는바 본고에서는 이를 비판적 읽기 교육의 재재로써 교수-학습 과정에서 적용할 수

-
- 7) 김민아, 「초등학교 고학년 비판적 읽기 지도 방안 연구」, 『국어교육 연구』 13, 춘천교대, 1998.
 김선배, 「비판적 읽기의 특성과 교수 학습 전략 탐색」, 『국어교육 연구』 14, 춘천교대, 1996.
 김영선, 「설득적 텍스트의 비판적 읽기 방법 연구」, 서울대 대학원, 석사, 1999.
 김종혁, 「비판적 사고와 교육」, 계명대 석사, 1989.
 마크백, 『비판적 사고와 교육』, 환영사, 1989.
 이숙안, 「비판적 읽기 책략 훈련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 1996.
 이도영, 「언어관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국어교육에의 적용연구」, 서울대 석사, 1993.
 전점영, 「비판적 읽기 지도에 관한 연구」, 전남대 석사, 1992.
 정래승, 「비판적 태도의 교육적 의의 및 형성 조건에 관한 고찰」, 고려대 석사, 1986.
 최석민, 「비판적 사고와 그 교육적 의의 - Ennis를 중심으로」, 경북대 석사, 1993.
 최향임, 「읽기 지도 요소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 1993.
 허재근, 「비판적 사고기능 훈련이 고등학교 학습 부진아의 학습 수행 능력 신장에 미치는 효과」, 부산대 석사, 1993.

있는 논의로 선행되어야 함을 제안하고자 한다.

3. 연구의 제한점

첫째, 본고의 논의는 지도 방안 모색에 있어서 현장의 실제적 실천 가능성과 유용성을 검증해 보아야 하나, 교수학습 전략을 이론적 측면에서 접근한 까닭에 현장의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그런데 이는 풍자소설이 이중적 언어 층위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언어 층위에 대한 연구가능성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실천적 측면에서도, 실험을 통해 검증한다면 보다 과학적이고 정확한 연구가 이루어 질 수 있으리라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그러한 부분은, 풍자소설 교육 연구를 통하여,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학습 현장에서 쓰일 수 있도록 실천적 연구와 검증을 한다면 전이력을 지닐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둘째, 문학교육을 비판적 읽기로써 접근하는 것은 자칫 문학 작품을 감상적 차원이 아니라, 분석적, 구조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정의적 측면을 간과할 수 있다는 한계점을 지닐 수 있음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학교육을 비판적 읽기를 통해 교육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문학감상이 문학 비평, 비판을 내포하고 있음을 전제로 해야 한다.

셋째, 6차 교육과정에서 제시되는 문학 교육 내용 중 풍자적 성격을 지닌 텍스트가 여러 편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모든 문학 교과서의 풍자적 텍스트를 선정하지 않고 채만식 풍자소설 중 수록된 『태평천하』, 「치숙」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다루었으며, 특히 『태평천하』는 장편소설인 까닭에 교과서에 수록된 부분만을 중점적으로 지도하고자 한다.

Ⅱ. 비판적 읽기의 이론적 고찰

1. 비판적 읽기의 개념 및 의미

국어과에서는 전통적으로 학생들의 언어사용 기능의 신장을 중시하였다. 언어사용 기능은 언어의 '표현'과 '이해' 기능이다. 이 기능은 단순히 문자를 읽고 쓸 수 있는 기초 기능이 아닌, 의미를 언어화(표현)하는 것이다. 언어에서 의미를 추출하여 재구성(이해)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의 학습이 균형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지적 기능으로서의 고등 사고 기능인 것이다.⁸⁾ 즉 국어 교육은 언어를 통해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과이다. 따라서 국어 수업에서는 말할 때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듣고 깊이 생각하며, 쓸 때 그들의 아이디어를 짜고 전개시키며, 읽을 때 분석시키고 평가하는 학습의 기초를 제공할 수 있다.⁹⁾ 글을 읽을 때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이 바로 비판적인 읽기다. 따라서 풍자적 텍스트의 비판적 읽기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비판적 사고의 개념과 비판적 읽기의 의미와 그 의의에 대해 먼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먼저 읽기에 있어 학습자는 필자의 일방적인 전달이나 독자의 수동적인 수용이 아니라, 필자와 독자 두 사람 모두 대화의 주체가 되는 쌍방적

8) 교육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2) 국어』, 2001, 18~19면. 7차 교육과정에서는 국어과의 교육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교육 내용의 범주를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국어 지식, 문학의 여섯 영역으로 구분하였으며, 전통적으로 학습자의 국어 사용 능력 신장을 강조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즉 이 능력은 기존 지식의 단순 수용이나 표출 능력이 아니라, 언어 기능을 통합적으로 운용하여 사고(의미)와 연결 지어야 하는 지적 기능(知的 技能, intellectual skills)으로서의 고등정신 능력으로 보고 있다.

특히 7차 교육과정이 지향하고 있는 창의적인 국어사용 능력은 언어활동의 반복에 의한 숙달보다는, 언어활동과 문학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의 체계적인 학습이 선행될 때 효과적으로 향상되면 이러한 지적 기반이 곧 국어 사용양상과 내용을 정확하고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효과적으로 신장시키는데 기여한다는 관점에서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

9) 한철우, 「국어과 교육의 역할 및 평가 방향 탐색」, 『교육개발』 70, 1991, 35면.

소통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읽기 과정에서 독자는 필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능동적으로, 그리고 비판적으로 받아들인다. 따라서 사고과정에 있어 비판적 사고(critical thinking)는 일반적 교육의 목적에 관해 언급할 때 공공연하게 사용되어져 왔다.

비판적 사고에 대한 개념은 불분명하게 알려져 있어(Beyer,1985),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반성적 사고’, ‘문제해결능력’, 또는 ‘의사결정’으로서 잘못 인식되어 왔으며, (Unks, 1985), 사고기능 용어 중에서 가장 오용된 용어 중의 하나다. 그런데 이러한 비판적 사고의 중요성은 6차 교육과정에서도 문학에 관한 일반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작품을 바르게 이해한다는 측면에서 ‘지식’의 측면에서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 6차 고등학교 국어 과목에서는 문학 교육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해 놓고 있다.

< 6차 교육과정 >

문학에 관한 일반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작품을 바르게 이해, 감상하며, 인간의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게 한다.

위의 내용을 보면 결국 국어 과목에서의 문학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문학 작품에 대한 바른 감상·이해 능력을 길러 줌으로써 가능하다는 취지이다. 즉 본고의 논의와 관련되는 문학 작품의 읽기 능력의 이해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러한 비판적 사고의 개념은 현재 실행되고 있는 7차 교육과정의 국어과 교육에 있어서 비판적 읽기를 통한 소설 교육을 더욱 강조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 7차 교육과정 >¹⁰⁾

가. 목표

정확하고 효과적인 국어 사용의 원리와 작용 양상을 익혀, 다양한 유형의 국어 자료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사상과 정서를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른다.

10) 교육부, 앞의 책, 2001, 117면.

나. 평가 목표와 내용

읽기 영역의 평가 목표는 읽기의 본질에 대한 단어 이해, 사실적 읽기, 추론적 읽기, 비판적 읽기, 읽기 태도 변화에 중점을 두어 설정한다.

에서처럼 국어 교육에 있어, 듣기, 뿐만이 아니라 읽기 영역에 있어 사실적 읽기에서 나아가 추론적 읽기로, 그리고 결국 수용자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를 요구하는 비판적 읽기로의 태도 변화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비판적 사고에 대한 정의는 이미 여러 연구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그들 대부분은 비판적 사고를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기능’과 ‘단계’를 제시하고 있다. 그 개념 정의간에는 어떤 공통점도 있지만, 비판적 사고의 구성요소로서 사용되는 인지과정, 지식구조, 정의적인 영역의 다양성이 개념을 정의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면 비판적 사고란 무엇인가? 원래 ‘비판’이라는 말은 ‘식별할 수 있는’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선택하다’, ‘분간하다’, ‘결정하다’, ‘논박하다’, ‘평가하다’ 등의 의미를 지닌 ‘krino’라는 말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주어진 대상을 구성하는 요소로 나누고 그 요소와 전체의 관련을 밝혀냄으로써 그 대상을 평가하는 것을 가리킨다.¹¹⁾

또한 일반적으로 비판적 사고는 지식의 권위, 정확성, 가치, 그리고 논쟁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비판적 사고는 지식을 수동적으로 얻는 것이 아닌 질문과 사고력의 역동적인 과정을 통한 적극적인 탐구방법이다.¹²⁾ 듀이¹³⁾는 비판적 사고를 어떤 신념이나 의심이

11) 『세계철학 대사전』, 교육출판공사, 1985, 466면.

12) Beyer, B.K. “Critical thinking - A direct, approach, Social Education”, 1985, p.49.

13) 이숙안, 「비판적 읽기 책략 훈련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 1996, 20면. Newton(1978)은 듀이의 ‘반성적 사고’를 근거로 해서 비판적 사고란 ‘정보를 입수하고 처리하며, 생각들을 평가하는 구체적 기능’으로 전제하고, 이에 따른 핵심적 능력으로 ①문제 정의의 능력, ②문제 해결을 위한 적절한 정보 선택 능력, ③진술되었거나 그렇지 않은 가정을 인식하는 능력, ④다양하고 그럴듯한 가설을 설정하고 정식화할 수 있는 능력, ⑤결론에 이르는 추리의 타당성을 관별할 수 있는 능력 등을 들고 있다.

가는 정보(지식)에 대한 더 큰 결론에 도달하려는 적극적인 끈질김과 주의 깊은 심사숙고로 보았다. 즉 반성적 사고¹⁴⁾를 통하여 학습이든 생활이든 모든 문제에 직면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지적태도를 기른다는 점에서 교육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콘블레스(Cornbleth, 1985)는 비판적 사고를 기존의 생각이나, 신념, 정의, 행동 등을 의문시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정의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비판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비판적 읽기'라는 용어는 연구자에 따라 '행간의 읽기' '평가적 읽기', '객관적 읽기'로도 쓰인다. 국내 국어교육 연구에서는 '비판'과 '비평'이 혼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문학작품이나 문학교재에 대한 비판에는 '비평'이라는 용어를 쓰는 경향이 높다.¹⁵⁾

그러나 본고에서는 문학 교육적 개념으로 학습자의 비판적 사고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비판'이라는 용어를 쓰고자 한다. 이러한 뜻의 '비판'이 넓은 영역에서 매우 다양한 의미로 쓰이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의 공통된 특징을 찾아보면, 어떤 대상을 무조건 수용하지 않는 '건전한 회의'라고 할 수 있다.¹⁶⁾ 여기서 회의는 반성적 사고를 적절히 이용하는

14) 최향임, 「국어교육에서의 비판적 사고 능력 신장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 1996. (Dewey, 『How We Think』, 1983. 재인용)에서 문제는 어떤 내용이 더 가치 있는가를 논의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용이 어떤 문제사태를 해결하는데 보다 효과적으로 도입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를 판단하는 것이 바로 반성적 사고과정인 것이다. 교육을 통해 가르쳐야 할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반성적 사고의 능력인데, 즉 이것은 어떤 문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여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를 도입하여, 이들을 적절히 활용하여 그 문제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사고의 능력 또는 사고의 습관을 기르는 것이다. 여기에서, 문제 해결 자체를 보다 지성화하는 과정으로서 반성적 사고능력을 기르는 것은 다른 여러 가지 사회적 가치, 또는 개인의 흥미 등과 구별되어 그 자체로서 가치 있는 교육의 목적이 된다.

15) 김민아, 「초등학교 고학년 비판적 읽기 지도방안 연구」, 『국어교육 연구』 13, 춘천대학교, 1998, 30면. L A Harris와 C B Smith는 시와 같은 문학적인 글의 가치에 대한 평가도 비판적 읽기의 한계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즉 이것은 문학 비평에 관한 과정을 다루므로 일반적으로 '문학 감상'이라고 부르나, 실제로 이것도 묘사되는 경험의 성질과 문학 형태로부터 끌어온 평가 기준을 사용한 비판적 읽기의 한 종류로 본다.

16) 전점영, 「비판적 읽기 지도에 관한 연구」, 전남대 박사, 1992, 8면. 맥페크(J E

것이다. 이러한 반성적 회의는 이 세상에는 모순 없는 그 어떠한 사물도 개념도 존재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확실한 지식은 없으며 다만 그 확실성의 정도가 문제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사고를 통해 어떤 대상을 무조건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¹⁷⁾ 반성적 회의로 대상에 접근하여, 거기에 내재한 모순이나 오류를 간파하고, 타당성과 정확도를 판단하여 대상을 평가할 필요가 근본적으로 생기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비판적 사고란 반성적 회의로 어떤 대상을 분석하여 평가하는 정신 과정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읽기 연구에서는 비판적 읽기가 비판적 사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마크셴(Marksheffel)은 비판적 읽기와 비판적 사고의 두 과정이 거의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뜻의 용어가 아니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두 과정 사이에 본 유일한 차이는 비판적 사고가 문자화된 글에 적용될 때, 비로소 비판적 읽기가 된다고 논하고 있다. 따라서 비판적 읽기는 읽는 동안과 후에 비판적 사고를 이용하는 것이라는 전제하에 비판적 읽기 개념과 중요성에 대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2. 비판적 읽기의 지도 내용

읽기는 지적, 정의적, 생리적 활동이 포함된 복합적 과정이면서 그 외부적 관찰이 쉽지 않는 내면적 활동이라 그 개념을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어렵다. 그런데도 읽기가 어떠한 활동을 의미하는 것인가 밝혀 보는 것은 독자에게나 읽기 지도 교사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 왜냐하면, 읽기가 어떠한 활동인가를 분명히 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읽을 것이며, 읽기의 지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막연해지기 때문이다. 즉 읽기의 목적은 글로부터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며, 독자가 그로부터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이다. 의

Mcpeck, 1981)는 비판적 사고의 특징을 반성적 회의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반성적 회의'란 그 회의 목적이 반대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E(어떤 분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증거)가 P(X 내에서 어떤 명제 또는 행동)의 진리 또는 존재 가능성을 입증하는데 충분치 못하다는 식으로 X에 접근하려는 경향 또는 기능과 다소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7) 김영선, 「설득적 텍스트의 비판적 읽기 방법 연구」, 서울대 석사, 1999, 18면.

미의 구성은 글과 독자의 지적, 정의적 활동의 상호 작용의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글 자체는 의미가 아니며, 글은 의미를 구성하게 하는 자극체 역할을 한다. 자극체에 의해 독자는 자기의 기존 지식체계-스키마¹⁸⁾를 동원하여 글 내용을 예측하고 글에 언급하지 않은 내용까지 추론하게 하면서 상호 작용을 하는 것이다.¹⁹⁾ 또한 여기서 독자의 주의집중력과 읽기와 관련된 독자 자신의 스키마에 대한 평가와 읽기 과정에 대한 자기 평가가 성공적인 의미 구성을 좌우하게 된다. 즉 성공적인 의미 구성을 위해서 먼저 독자는 글의 의미 구성에 주의를 집중하고, 자신의 스키마가 의미구성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가를 평가한다. 그리고 난 후 글을 읽으면서 글에 대한 이해상태와 지시의 읽기 태도를 점검하여 의미 구성이 조절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읽기는 전략적인 문제해결과정과정도 같은 것이다.

스미스와 로빈슨(N. B. Smith & H. A. Robinson, 1980)은 읽기 과정과 그 요소를 설명하고 지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4단계의 이해발달영역을 설정하고 있다.²⁰⁾

- ① 문자적 이해 (literal comprehension)
- ② 해석 (interpretation)
- ③ 비판적 읽기 (critical reading)
- ④ 창조적 읽기 (creative reading)

먼저 ① 문자적 이해는 쓰여진 액면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다. 김병원(1976)은 이를 평면독서라 하는데, 글을 평면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표현된 이상의 것을 알아내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수준을 의미한다. 따라서 문자적 이해는 깊은 사고를 요구하지 않는, 의미 파악 단계 중에서 가장 낮은

18) 스키마(Schema)는 우리의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는 경험의 총체이다. 이를 연구자에 따라 '지식구조'(Knowledge Structure), '틀'(Frames) 이라는 여러 이름으로 부른다. 스키마의 개념에 비추어 본다면, 글의 독해는 글의 여러 요소들과 기존 스키마를 대응시키는 구성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

19) 전점영, 앞의 논문, 11면.

20) 전점영, 앞의 논문, 16~20면.

수준의 읽기이다.

② **해석²¹⁾ 단계**는 흔히 ‘행간의 읽기’라고 부른다. 책에 직접 진술되지 아니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표현된 이상의 의미를 파악하는 읽기이다. 개별적으로 진술된 아이디어 사이를 연결하고, 추리하고, 결론을 이끌어 내거나 감정적 반응을 경험하는 단계를 말한다. 그러기 때문에 해석은 문자적 이해보다 깊은 사고가 요구되는 읽기이다.

③ **비판적 읽기 단계**는 앞에서는 살펴본 것처럼 글을 읽는 동안이나 후에 비판적 사고를 이용하는 읽기이다. 즉, 독자가 반성적 회의로 글을 분석하여, 그 가치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능동적인 읽기이다.

④ **창조적 읽기**는 읽기를 통하여 얻어진 결과를 적용하거나 확장하는 것이다. 즉 독자가 필자의 아이디어를 재조직하거나, 아이디어를 어떤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 위해 이용할 때, 그러한 적용이나 이용을 창조적 읽기라 한다.

따라서 글읽기의 과정은 ①사실적 읽기 → ②추론적 읽기(해석)→ ③비판적 읽기라고 볼 수 있다. 즉, 독자가 필자의 아이디어를 재조직하고, 아이디어를 어떤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 위해 이용할 때, 그러한 적용이나 이용을 창조적 읽기라 한다. 따라서 읽기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 단계인 창조적 읽기로까지 나아가야 보다 진정한 의미에서 적극적 읽기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문학 교육과 관련하여 제 7차 국어과 교육 과정에서 비판적 읽기와 관련된 내용을, 7~10학년(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1학년)을 중심으로 추출해보면 다음과 같다.

7-(4) 내용의 통일성을 평가하며 글을 읽는다.

8-(5) 읽은 글의 일관성을 평가한다.

9-(4) 읽은 내용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판단한다.

9-(5) 표현의 효과를 평가하며 글을 읽는다.

10-(4) 표현의 효과에 대하여 평가하며 글을 읽는다.

10-(5) 읽은 내용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평가한다.

21) ‘해석’은 폭넓은 의미를 지닌 용어이나 여기서는 글에 진술되지 아니한 내용을 추론을 통해 이해하는 것으로 추론적 읽기에 해당한다.

인간의 사고능력을 학습 목표의 관점에서 접근한 것은 블룸(Bloom)이 대표적인데, 그가 분류한 교육 목표의 예 중에서 언어를 통한 비판적 사고 능력과 관련된 것을 뽑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²²⁾

(1) 분석력

① 요소의 분석력

- 진술되지 않은 가정을 인식하기 · 사실과 가설을 구별하기

② 관계의 분석력

- 주어진 정보와 가정으로 가설의 일치성을 검토하는 것
- 글 속의 아이디어 간의 상호 관계를 파악하기

③ 조직 원리의 분석력

- 문학, 예술 작품의 의미를 이해하는 수단으로서 그 유형과 형식 인식하기
- 광고, 선전문 등 설득 자료에 사용된 일반적인 방법을 인식하기

(2) 평가력

① 내적 준거에 의한 판단

- 내적 기준에 의한 판단, 진술의 정확성에 유의하면서 사실을 진술하는 일반적인 정확성을 평가하기

② 외적 준거에 의한 판단

- 작품이 가지는 효용성과 공정성을 통해 가치를 평가하기
- 외적 기준에 의한 판단으로 한 작품을 그 분야의 최대 수준, 특히 우수하다고 알려진 다른 작품과 비교하는 것

이 항목들은 블룸(Bloom)이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한 것들 가운데에서 추출하였기 때문에, 비판적 사고 능력의 신장을 위하여 충분하지 못한 면도 있다. 그러나 각 항목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난이도가 높아지는 순서로 배열되어 있어서 비판적 읽기 지도에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이밖에 비판적 사고 능력의 하위 분류를 시도한 학자로는 에니스(Ennis), 브라운 쿡(Brown), 바이어(Beyer) 등이 있는데, 이들의 주장을 바탕으로 학습이 가능한 비판적 읽기 지도 요소²³⁾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22) 한철우 외, 『과정중심 독서지도』, 교학사, 2001, 106~117면.

이들의 주장을 바탕으로 학습이 가능한 비판적 읽기 지도 요소를 추출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으며, 문학적인 글에 적용 가능한 내용은 (7)~(10)까지의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최향임, 1992)

- (1) 출처의 신뢰성을 평가하여 보다 신뢰성 있는 자료 선택하기
- (2) 사실과 의견 구분하기
- (3) 동일한 문제를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보기
- (4) 주장이나 진술에 개재된 편견 파악하기
- (5) 타당하고 충분한 근거(이유, 증거)를 들어 의견을 주장·평가하기
- (6) 설득하는 기교를 파악하기
- (7) 판단(평가)을 하기 전에 평가의 준거 마련하여 사용하기
- (8) 표현상의 특징과 그 적절성 파악하기
- (9) 단어의 함축적 의미 파악하기
- (10) 글의 전개 방식 파악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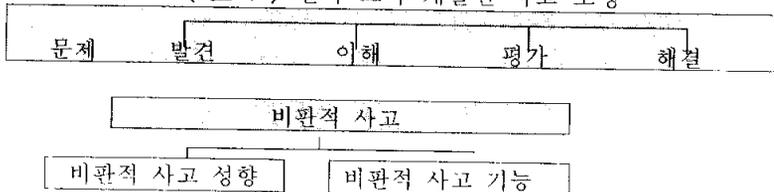
또한 1980년대 한국 교육 개발원에서는 사고력 교육 연구에 비중을 두고 계획·실천하면서, 학습상황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한 비판적 사고 기능의 하위 요소를 다음과 같이 7가지로 제시하기도 하였다.²³⁾

그런데 앞에서 제시한 비판적 읽기의 하위 요소가 문학적인 글에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 있으며, 자칫 문학교육의 총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분석적 해석에 치우칠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블룸(Bloom)의 지도내용과 최향임의 지도 내용 중 (7)~(10)

23) 최향임, 「국어 교육에서의 비판적 사고 능력 신장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 1999, 20면.

24) 허경철 외, 「사고력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연구 IV」, 한국교육 개발원의 내용, 1990.의 내용을 한철우 외, 2001, 103면. 앞의 책에서 재인용한 것을 참조한 것

〈 표 1 〉 한국 교육 개발원 사고 모형



항목을 중심으로 소설 교육의 비판적 읽기 지도의 평가력에 의한 지도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문학감상이 문학을 비평적으로 읽는 것, 바로 비판적 읽기 요소가 선행됨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논의가 충분히 타당함을 지적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소설 교육에 있어 건전한 회의성²⁵⁾을 가지고 작품을 분석하고 평가한다면, 작품 읽기에 대한 능동적 이해를 통한 작품의 이해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살펴본 비판적 읽기는 독자, 혹은 학습자가 반성적 회의로 글을 분석하여 그 가치를 판단 평가하는 능동적인 읽기라고 정의할 수 있다.

비판적 읽기의 특징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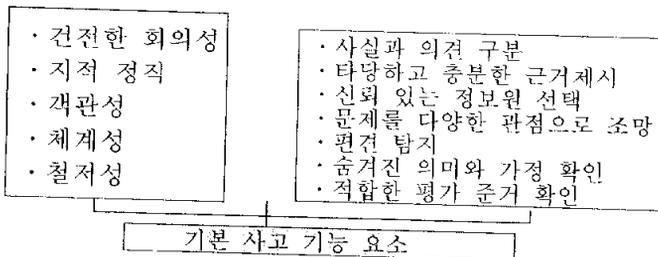
첫째, 비판적 읽기는 이 세상에는 모순이나 오류가 없는 완전한 글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둘째, 비판적 읽기의 핵심적 의미는 반성적 회의를 가지고 글을 읽는 성향과 기능이다.

셋째, 비판적 읽기는 항상 X에 대한 읽기이기 때문에, X에 관한 지식이 비판적 읽기의 핵심요소가 된다.

넷째, 비판적 읽기의 목적은 글을 분석, 평가하는데 있으며, 비판적 읽기는 일반화되는 기능이 아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반성적 회의로 글을 분석하고, 그 가치를 판단하여 평가하는 능동적인 개념의 비판적 사고를 통해 읽기의 전형적 확장을 구현해내고자 한다. 그리고 비판적 읽기를 내용으로, 읽었던 것을 어떤 지식이나 경험의 틀 속으로 결합시키는 창조적 읽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풍자 소설을 통한 읽기 능력 신장 방안에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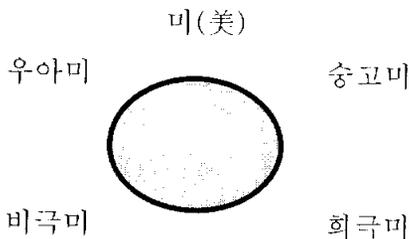
25) 진접영, 앞의 논문, 9면.

III. 풍자소설의 의미와 교육적 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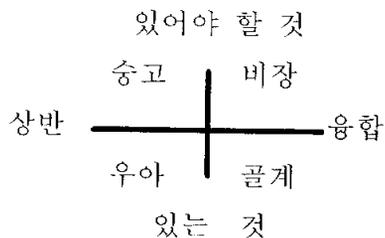
1. 풍자소설의 개념 및 의미

한편의 문학 작품을 살펴보는 데 있어, 문학이 사회를 반영한다는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작가의 생활체험, 개인적, 사회적 환경이나 삶의 양식으로서의 문화 또는 제도에 대한 이해도 선행되어야 한다. 즉 그 시대 사회의 특정한 삶의 모습과 현실이 문학 작품에 반영되어 있고 작가는 어떤 형태로²⁶⁾든 그러한 현실을 자신의 작품에 담을 수밖에 없게 된다. 문학이 언어를 통한 인생의 표현이라면, 그 인생을 살아가는 주체자의 삶의 양식에 따라 문학은 다양한 미적 범주를 지닌 구체적인 작품으로 존재하게 된다. 이때 삶의 방식은 삶을 의식하는 범주가 되며, 이 태도 여하에 따라 작품은 자신의 미적 범주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미적 범주에 대한 관심은 거슬러 올라가면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의 희극과 비극으로서 이분화에서 비롯되었다. 근래에 이르면 막스 데소르(Max Dessoir)에 의해 문학의 범주를 숭고미, 우아미, 비극미, 희극미라는 <표1>과 같은 사분법 체계로 나누는 논의가 제기되었다.



< 표 1 미적 범주 >



< 표 2 미의 사분법 체계 >

그리고 이를 한국문학에서 조동일은 기본범주의 요인을 <표2>와 같이 '있어야 할 것'과 '있는 것', '융합'과 '상반'의 기준으로 분류하고 골계를 다

26) 임경순, 「인물형상화 양상을 통한 소설교육 연구 - 채만식 풍자소설을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 1995, 72면.

시 해학(Humor), 아이러니(Irony), 풍자(Satire), 기지(Wit)로 분류하였다. 그러므로 풍자는 골계의 하위 분류로 문학작품의 미적 범주로서 문학의 한 미적 양식으로서 해학과 더불어 골계 문학론으로서 주목되는 문학의 양식이다.²⁷⁾

원래 풍자의 의미를 보면²⁸⁾, 원래 스스로가 지칭하는 바의 내적 형식에 의거하여 정의되는 장르 개념이었다. 그러나 18세기 이후의 서양 문학 전통에서는 모든 장르에 나타날 수 있는 특유의 태도나 어조, 또는 문학상의 기교를 가리키는 개념으로 바뀌어진 형태가 되었다. 특히 사회가 이원적 구조를 이루고 있을 때 하부구조가 상부구조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즉 구사회의 모랄이나 조직이 권위를 잃지 않고 잔존할 때 신사회의 모랄이나 조직이 거센 반발과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 우리의 풍자 문학이 가장 활발했던 시대가 실학파의 출현과 함께 전통적 도덕 사회에 대한 반성과 자각이 움튼 18세기라는 것과 사회 개혁이 일어나던 개화기라는 사실, 그리고 일제의 침탈이 극을 치닫던 1930년대의 소설에 풍자적 요소가 많이 보인다는 것 등이 그 증거일 것이다.

따라서 풍자는 대상과 주제를 우습게 만든다는 점에서 골계의 하위개념으로, 그것에 대해 모욕, 경멸, 조소의 태도를 환기시킴으로써 대상과 주제를 깎아 내리는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곧 대상에 대해서는 우행의 폭로, 사악의 징벌이 되는 침예한 비평이 되고 독자에게는 조소와 냉소가 되는 웃음의 현상인 것이다. 그러므로 풍자의 가장 주된 속성은 공격성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것은 대체로 작품자체의 외부에 대하여 이루어진다. 그리고 하부 구조의 상부 사회에 대한 공격의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웃음이 파생되며, 웃음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즉 풍자의 이러한 공격성은 독백, 대화, 연설, 풍속과 성격묘사, 패러디와 혼합되어 나

27) 김준오, 『한국현대장르 비평론』, 문학과 지성사, 1990.에서 김준오는 풍자는 문학의 기교인가, 또는 어조·태도인가, 또는 문학의 한 종류인가라는 의문에서 풍자가 어느 하나의 개념으로 한정되지 않고, 주제에 구속되지 않는 개방성을 띠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풍자가 많은 역사적 장르들과 자유롭게 상응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풍자의 효용론적 가치는 삶의 진실성을 확보하려는 데에 있으며 풍자가 골계의 한 변형이라고 보았다.

28) 한용환, 『소설학 사전』, 고려원, 1992, 452~453면.

타나기도 하고, 기지, 아이러니, 조롱, 비꼬기, 냉소, 조소, 욕설 등의 어조를 사용함으로써 나타나는 등 개방적인 문학형식을 취한다. 물론 이러한 개방성은 풍자가 희극이나 기지, 유머 아이러니 등과 명쾌하게 분별되지 못하게 하는 속성을 갖게 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풍자는 웃음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해학과 유사하지만 익살이 아닌 웃음이라는 점에서 해학과 구별되며, 또한 열등한 도덕적, 지적 대상과 상태를 공격한다는 점에서 기지와 유머, 아이러니 등과 다르다. 또한 풍자의 수준은 풍자가와 독자 사이에 자연스럽게 수궁될 만한 것들이기 때문에 풍자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대상의 교정과 개량을 위해서 대상을 비판하고 공격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 희극, 기지, 유머, 아이러니 등과 같은 각각의 개념들이 상호 삼투해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풍자는 늘 현실과 이상의 차이를 날카롭게 의식하고 있으며, 그를 통하여 '진실의 방패'로서 현실의 부조리함을 비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창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²⁹⁾

이와 같은 해석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풍자란 현실에 대한 부정적, 비판적 태도에 근거를 두고 성립되며, 현실의 모순과 불합리에 대해 이쪽이 무력하기 때문에 정면으로 대결할 수 없을 경우 측면, 또는 간접적으로 공격하는 한 방법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풍자의 목적은 비리와 모순이 가득찬 세계를 보여줌으로써 현상의 근원적 병폐를 인식하도록 하고 나아가 그것의 전반적인 시정을 촉구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³⁰⁾ 그래서 풍자는 역사적 현실의 모순된 성격을 인식하는데서 성립된다.

풍자소설은 작가가 윤리적 가치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진실이 없는 세계를, 인물과 사회의 추함, 악함, 모순 등을 비판함으로써 그 교정을 목적으로 삼기 때문에 거기에 사용되는 독특한 표현방식을 갖게 된다. 이것

29) Arthur Pollard, 송명현역, 『풍자(Satire)』, 서울대 출판부, 1986.

30) 문용기, 「채만식의 풍자 문학 연구」, 원광대 석사, 1986, 10면. 에서 그는 풍자소설은 세계의 진상을 직접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곡된 거울을 통해서 보여준다. 독자가 소설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 멸시(蔑視)와 조롱(嘲弄)을 퍼부을 수 있도록 고의적으로 배경과 인물의 성격을 왜곡(歪曲)시킨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은 곧 풍자주체, 풍자대상, 풍자 방법의 문제로 수렴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풍자소설은 풍자 대상의 모순이나 우행, 악행에 대한 풍자 주체의 우월감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풍자 대상은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결함을 지닌 것으로 표현된다. 곧 풍자를 통해 이들의 악행, 모순 등이 폭로됨으로써 비속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풍자대상을 비판한다는 것은 그 대상을 격하시키거나 가치를 떨어뜨리는 다양한 방법이 사용된다. 여기에는 아이러니, 희화화, 그로테스크, 고의적 비하, 부조리한 행동 등 다양한 수법이 쓰일 수 있다. 이러한 수법들은 물론 풍자 대상에 대한 분노, 경멸이나 증오의 뉘앙스 즉 대상을 효과적으로 비판하기 위한 방법으로 쓰여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³¹⁾

그러므로 풍자소설의 기준은 작품 안에 역사적 현실이 어떻게 파악되어 있고, 역사적 현실의 사실성과 가능성이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구별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풍자소설 내에서의 독특한 특성은 이를 읽는 학습자에게 비판적 사고를 통해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자칫, 액면 그대로 작품을 이해할 수 있는 오류를 범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여기서 비판적 읽기 전략이 도입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2. 채만식 소설의 풍자적 성격

풍자는 웃음을 자아내게 하되 웃음 가운데 상대방을 아프게 쏘아 부치는 통매(痛罵)의 의미를 포함한다. 풍자소설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우스운 이야기이다. 그러나 그 웃음은 마음을 아프게 찌른다는 점에서 겨자맛에 비유될 수 있고, 독자는 웃음 뒤에 숨은 질책을 간파하고는 또 한번 웃게 된다고 할 수 있다.³²⁾ 따라서 풍자소설은 세계의 진상을 직접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곡된 거울을 통해서 보여준다. 독자가 소설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 멸시(蔑視)와 조롱(嘲弄)을 퍼부을 수 있도록 고의적으로 배경과 인물의 성격을 왜곡(歪曲)시킨다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때문

31) 임경순, 앞의 논문, 1995, 72면.

32) 우한용, 「뒤집어 말하기와 바로잡아 말하기 - 채만식의 '치숙」, 『독서와 논리』, 1994, 20면.

에 독자는 '왜곡된 거울'에 비친 세계상을 바로 보기 위해서 거울을 바로 잡는 지적 긴장을 지속해야 한다. 즉 멸시와 조롱을 피부할 수 있으려면 독자는 자신의 안목을 두 가지 방향으로 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곡된 거울에 비친 현실을 정확히 보아야 하며, 그것을 바로잡아 보려는 노력을 지속해야만 풍자소설의 의미를 체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1930년대 후기의 장편소설은 이른바 <세태소설>과 통상적인 의미의 <통속소설>크게 갈라볼 수 있었다.³³⁾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현실의 올바른 반영과 비판이라는 측면에서 우려와 개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런 결과로 당대 현실에서 일종의 문단침체의 타개책으로 제기된 것이 최재서의 『풍자문학론』이었다. 그는 현대와 같은 과도기에 있어서 예술적 작가가 가질 수 있는 최후의 태도는 비평적 태도라 하였다. 전통의 붕괴로 말미암아 사회적 위기가 초래되고 그것이 문학적 위기를 수반하게 되는데 문학은 외계세계에 대한 거부와 비평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바로 풍자라 했다.³⁴⁾ 따라서 1938년 당시의 문학적 경향과 더불어 풍자문학과 세태소설과는 전혀 별개의 것으로 무관할 수는 없다는 것이 바로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으로서, 『태평천하』의 에에서도 논급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이 작품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자는 데서 리얼리즘에 입각해 있고, 풍자 역시 그것의 적극적인 접근방법이라는 점에서는 궤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풍자는 이종의 간접성을 가지는데 그것은 그 시대의 버리와 현대인의 맹목성을 이른바 정공법을 쓰지 않고 측면에서 공격하거나 아이러니의 방법을 통하여 부조리를 고발한다는 점에서 특이할 뿐이다.³⁵⁾

이러한 사실은 작가 자신의 상황의식으로 보았을 때, 작가 채만식이 30년대 후기에 이르러 사회의 제반 문제를 정면으로 들추어내어 비판할 수 없는 일종의 한계상황에 부딪치자, 어쩔 수 없이 현실고발의 간접화법을 쓰게 되지 않았나 하는 점이다. 물론 여기에는 일찍이 최재서나 이운곡 등이 일종의 문단위기 타개책으로 풍자문학의 유용성을 활발히 전개한 데

33) 이주형, 『태평천하의 풍자적 성격』, 서울대 출판부, 문학과 지성사, 1984, 105면.

34) 김준오, 『한국현대장르 비평론』, 문학과 지성사, 1990, 244면.

35) 우한용, 앞의 책, 24면.

에 영향받은 바 있으리라는 설도 있다. 그러나 작자 자신의 상황의식, “오늘날 선불리 사상이니 인텔리를 그린다든 것이 객관적인 난관도 난관이라니와 우선 주관적으로도 대단히 위험한 노릇이어서 제재 자체에서부터의 제약과 더불어 관무사, 촌무사로 두루 태평인 내용을 담아 사이비농민소설이나 쓸 수밖에 없는 한심스런 상황에서 기껏 리얼리즘에 빠지기도 하고 수법상으로 풍자소설을 써보기도 했다.”³⁶⁾는 작자의 고백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사점이 된다. 그리고 『태평천하』를 전후해 일련의 풍자작품인 단편 「레디메이드인생」, 「소망」, 「치숙」등을 발표했다. 그리고 3년 후(41년) 세태소설의 대표작으로 크게 논의의 대상이 된 『탁류』를 쓰게 되었다는 사실은 풍자 역시 리얼리즘의 한 적극적인 접근방법이었다는 데서 근본적으로는 궤를 같이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³⁷⁾

그러므로 이러한 풍자성을 지닌 텍스트로 한국 소설 문단에서, 채만식 소설은 당대현실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자 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풍자적 기법을 통하여, 장편소설 『태평천하』를 비롯하여 단편소설 「치숙」, 「레디메이드인생」, 「소망」 그리고 해방 뒤의 「논이야기」, 「역로」 등에서 일련의 풍자적 성과를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채만식 소설의 특징은 풍자성을 통해 당대 현실의 부조리함을 비판적으로 제시했던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태평천하』와 「치숙」은 채만식 소설의 풍자성을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 『태평천하』의 부정적 인물 풍자

『태평 천하』에서 작가는 부정적 인물들로 구성된 가족을 통하여 한말(韓末)과 개화기, 그리고 일제 강점기 세대 사이의 가치관의 변화와 현실 대응에 따른 행동 유형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바탕이 옳지 못한 가정이 어떻게 허물어져 가는가를 적나라하게 제시하였다. 즉 작가

36) 홍석영, 「채만식의 풍자문학 연구 - 태평천하를 중심으로」, 원광대 석사, 1999. 19면.

37) 홍석영, 위의 논문, 20면.

는 식민지 사회에서 무엇이 문제이며 무엇이 생성되어야 할 것인가를 『태평천하』라는 제목에서 드러내듯이 풍자성을 통해 암시하려 하였던 것이다.³⁸⁾

역사적으로 볼 때 『태평천하』가 쓰여진 시기는 만주사변(1931)을 일으킨 일본과 중국이 전면전쟁(1937)이 일어나면서 전시체제령을 공포한 직후였다. 따라서 그만큼 언론 관계의 검열이 금식하였던 시기에 이 작품이 쓰여졌다. 어두운 시대를 살면서 작가는 왜곡된 현실을 전면, 혹은 측면에서 공격하여 식민지 시대 민족의 삶과 사회적, 역사적 문제를 가시 돋친 웃음으로 고발하였다. 이는 『태평천하』가 당시의 사회적·역사적 현실의 풍자에 맥(脈)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태평 천하』는 윤 직원 영감과 같은 부정적이고 타락한 인물에 대한 풍자가 핵심을 이룬다. 그리고 이러한 풍자성은 반어(反語, 아이러니) 수법을 통한 부정적 인물의 희화화에 의해 실현되고 있다. 따라서 작가가 작중 인물을 겉으로는 추켜세우는 것처럼 서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부정적 측면을 더욱 드러내어 그 인물을 웃음거리가 되게 만들면서 추악한 일면을 폭로하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난다. 부정적인 인물의 성격이 강할수록 풍자의 농도는 심해지기 마련인데, 이 작품의 경우는 윤 직원 영감이 그 중요한 풍자 대상이 되고 있다. 이 작품에서 풍자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는 인물은 윤 직원 영감의 둘째 손자인 '종학'이 한 사람뿐이다. 이는 '종학'이라는 인물에 대해 작가가 긍정적 시각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종학')는 소설 전면(前面)에 등장하지 않고 윤 직원 영감의 욕망의 표현 속에, 그리고 작품 후반부의 '동경에서 온 전보' 속에 잠깐 나타날 뿐이다. 물론 등장 인물의 출현 빈도수가 그 인간적 가치의 경중에 비례하지는 않겠지만, 작가가 지니고 있는 긍정적 미래관을 구현시키기에는 비흡한 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보더라도 이 소설의 초점은 역시 윤직원 영감에게 있으며, 작가는 윤직원 영감 같은 부정적 인물을 통해 당시 현실의 문제를 드러내고자 하였던 것이다.

윤직원 영감의 도덕적 규범과 담을 쌓고 있는 부정적 인물 묘사는, 인력거를 타고 돈에 대해 집착하는 다음과 같은 인력거꾼과의 품삯시비 장

38) 홍석영, 위의 논문, 15번.

면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인력거에서 내려선 윤직원 영감은, 저절로 떠억 벌어지는 두루마기 앞섶을 여미려고 하다가 도로 걷어 찢히고서, 간드러지게 허리띠에 가 매다린 새파란 염낭끈을 푼다.

“인력거 썩이(삿이) 뗏 분이당가.”

이 얘기를 쓰고 있는 당자 역시 전라도 태생이기는 하지만, 그 전라도 말이라는게 좀 경망스럽습니다.

“그저 처분해줍사요!”

...

“으응! 그리여잉? 그럼, 그냥 가소!.”

에서 나타나듯이 인력거꾼이 풍신이 좋은 어른이니까 후이 생각해 달라는 뜻으로 ‘그저 처분해 주십시오’하니까 그냥 돌아서는 윤영감이다. 즉 윤직원 영감은 인력거를 타고 왔으면서도 인력거꾼에게 “그냥 가소”라고 말하는 것처럼 경우가 없고, 염치없는 탐욕적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

그리고 공짜로 극장 구경하려는 것이나, 극장 구경을 위해 상등성에 앉아 구경하려다가 극장 안내원과 실랑이를 벌이는 장면에서도 인색하고, 몰욕주의자이면서도 매우 유머스러운 반면, 억지스러운 장면을 발견할 수 있다.³⁹⁾

“여기 백권석인데요, 노인은 흥권을 사셨으니까 저 위층 흥권석으로 가셔야 합니다.”

“아아니, 여보! 그래 그런 법이 어디가 있단 말이요? 높은 디가 하등이 구, 나찬 디가 상등이라니 ”

“나넌 칠십 평생에 그런 말은 처음 들겠오!”

이렇게 하등석을 사서 무대 맨 앞에 앉는 윤영감의 억지가 웃음을 자

39) 김종현, 「채만석 소설 연구 - 풍자 기법을 중심으로」, 중앙대 박사, 1988, 40면~41면.

아내게 하면서도 이면에는 지주계급들에의 억지스러움을 그린 것 같은 데 이런 장면을 흔히 볼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작가가 부르짖고 싶은 것은 소재목인 '우리만 빼놓고, 어서 망해라'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인 지주계급의 이기주의에 대한 비판이었을 것이다. 윤직원 영감은 일제 치하를 태평천하로 착각하여 치부하고, 자신의 안일을 꿈꾼다. 그래서 부지런히 족보에 도금을 하고, 양반혼인을 시키고, 집안의 문벌을 닦고자 한다. 따라서 당시에 매관 행위가 얼마나 공공연히 성행하였으며, 가문을 위장하는 몰지각한 봉건 귀족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윤직원은 바로 이러한 몰지각한 기회주의자를 상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마음의 빈민굴에서 이 집안에 생과부, 통과부 도합 다섯 과부가 되기까지의 사정을 통해 대가족 제도의 모순을 우롱하고 있다. 그리고 72세의 윤영감이 15세 춘심을 여섯 번째로 맞이하여 안달을 부리며 화류시절을 즐기는 것을 단순히 통속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당시 지주계급들의 생활상을 냉소함으로 봄이 타당할 것 같다.⁴⁰⁾

마지막으로 <망진자(亡秦者)는 호야(胡也)나라>에서는 경찰서장이 되기를 바란 기내 속에서 일본으로 유학을 보낸 손자 종학이가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가 경찰서에 붙잡혔다는 전보를 받고 윤영감은 몹시 놀란다.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어? 오죽이나...”

윤직원 영감은 팔을 부르짖은 주먹으로 방바닥을 땅 치면서 성난 황소가 영감을 하듯 고향을 지릅니다.

“화적폐가 있느냐? 부랑당 같은 수령(守令)들이 있느냐?... 재산이 있대야 도적놈의 것이요, 목숨은 파리 목숨 같던 말세(末世)년 다 지내가고 오..., 자 부아 라 거리거리 순사요, 골골마다 공명한 정사(正事),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어..., 남은 수십만 명 동병(勳兵)을 하여서, 우리 조선놈 보호하여 주니, 오죽이나 고마운 세상이어? 으응?...”

이렇게 말하는 주인공은 군국주의 일본의 식민지에서 시달리는 그 시대를 오히려 “일본이 수십만 명 동병하여 조선을 지켜준다”고 망언한다. 이

40) 정석근, 「채만식 소설의 풍자성에 관한 연구」, 원광대 석사, 1989, 25면.

것 역시 주인공을 모멸하고, 현실을 풍자한 작가정신의 일단을 작가가 드러낸 것이라 하겠다. 즉 작가는 윤직원과 같은 사회의식이 결여된 이기적인 유산지주계층으로 비판하고 그를 통해 식민지 현실의 모순을 반어적으로 폭로하고 있는 것이다. 전쟁의 기지화된 조국의 참담한 현실을 두고 일본이 조선을 지켜 준다고 생각하는 윤직원의 그릇된 역사인식을 반어적으로 보여주어 왜곡된 역사와 친일분자들의 잘못된 삶의 태도를 간접적으로 풍자하고 있는 것이다. 41)

이러한 부정적 인물인 윤직원의 삶의 방편에 대하여 작가가 대단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작품의 시대상이 식민지 궁핍화 현상의 첨예한 예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작가는 민족자본이 일본의 대자본 밑에서 미두나 고리대금업 수행 등을 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 피폐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즉 일제에 의해 우리 민족의 근거지가 박탈당하고 있는 모습을 우회적 수법을 통해 오히려 적나라하게 드러내고자 했던 것이다.

한편 외적 형식면에서 보면, 문체에 있어 전통적 판소리, 또는 탈춤 사설의 어투를 계승하고 있다. ‘~입니다.’와 같은 경어체 문장이나, ‘~짚다요.’와 같은 경박한 어투를 빌어서 작중 인물의 행위를 조롱하고 경멸하고 있다. 이는 바로, 「춘향가」의 방자(房子)나 「봉산 탈춤」의 말뚝이 같은 인물이 양반 사대부의 면전에서 공경하는 태도를 짓다가도 뒤에 가서 느닷없이 조롱하고 경멸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을 본뜬 것이라 할 수 있다. 42) 결국 이 작품에서 작가는 윤직원을 전면에 내세워 왜곡된 사회와 그 속의 부정적 인물을 조롱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태평천하』는 일제 강점하의 현실을 태평천하라고 믿는 주인공의 시국관을 풍자한 작품이며, 이러한 작품을 통하여 작가 채만식은 부조리한 현실의 폭로를 우회적 수법을 통하여 오히려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작가는 식민지 시대의 사회적 구조 속에서 살고 있는 여러 계층의 유형의 인물들을 통해서 국가를 분명히 알고 올바른 국가관을 가지고 있지

41) 정석근, 위의 논문, 25~26면.

42) 이주행, 『한국현대소설사』, 홍성사, 1979, 322~326면의 내용을 홍석영, 위의 논문, 25면에서 재인용한 것을 참고 한 것임.

못한 사람들을 각성시키고, 전통적 사회의 몰락과 동시에 새로운 사회형성의 혼란이라는 측면을 부각시킨 것이다. 그래서 현실을 현실 그대로 표현할 수 없던 역사적 상황 속에서, 긍정적인 것을 부정하고 부정적인 것을 긍정하는 역설의 풍자로 쓰여진 「태평천하」는 더욱더 작품 이상의 효과를 자겨올 수 있었다⁴³⁾. 그리고 이는 학습자의 보다 적극적이고 비판적인 사고와 읽기가 요청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이러한 요소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비판적 읽기 과정에서 학습자에게 내적 준거의 적절성 여부를 이해하게 하는데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치숙」의 이중부정에 의한 풍자

「치숙」은 제목에서 풍기듯이 역설을 이루는 본격적인 풍자소설이며, 또한 1인칭화자의 요설적 설화체 문장이 특이한 풍자의 스펙트럼대를 형성하고 있다.⁴⁴⁾ 「치숙」은 인물들의 갈등 면에서 많이 배우고도 무능한 고모부와 배우지 못하고도 세상사를 잘 요리해 나가는 1인칭 화자의 대립으로 전개된다. 따라서 이 작품은 작가에 의한 등장인물의 평가는 배제된다. 독자는 1인칭화자에 의해 진행되는 이야기를 통하여 등장인물들의 사고와 행위, 그들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게 된다. 1인칭화자는 현재의 시점에서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가 폐가망신 당한 고모부에게 경멸적인 인사를 늘어놓는다. 그리고 고모의 20년의 소박생활, 1인칭화자와 고모와의 관계, 병들어 폐인이 되어 출옥한 남편에게 쏟는 아주머니의 정성, 그리고 자기가 고모부를 경멸하고 미워하게 된 까닭이 어느 날 그와의 말씨름에 연유했음을 제시한다. 끝으로 그는 고모부를 짙은 경멸과 조소로써 하루바삐 죽어야 하고 죽어서 마땅하다고 단정한다.⁴⁵⁾

풍자의 대상은, 등장 인물들의 행위와 사고방식이 된다. 1인칭화자가 보는 세상은 고모부와 그리고 독자가 보는 그것과는 완전히 대조된다. 그가 가장 격심하게 반발을 일으키고, 두려워하는 것은 사회주의다. 그가 알고

43) 김종현, 앞의 논문, 1988, 46면.

44) 윤병로, 『현대작가론』, 선명문화사, 1974.

45) 유인순, 「풍자문학론 - 채만식·김유정을 중심으로」, 『인문학 연구』 18, 강원대, 1983, 61면.

있는 사회주의는 ‘다이쇼’를 통해서 학습한 것이다. 그것은 아편과 같은 것이요, 부랑자패나 하는 것이요, 부자의 돈을 빼앗는 것으로 나라에서 금하는 것이다. 그는 열심히 일해서 ‘다이쇼’의 신용을 얻어 중국에는 ‘내지처녀’와 결혼하여 ‘내지인’으로 사는 것이 최상의 목표인데, 사회주의는 이 모든 희망에 장애물이 되므로 증오의 대상이 된다. 그런 사회주의 운동을 고모부가 했으니 고모부는 죽어 마땅한 대상이 되는 것이다. 또한 그가 알고 있는 경제는 돈 잘 벌어서 절약해 쓰는 것이다. 그런데 그의 눈에는 경제학을 전공한 고모부는 오히려 돈을 못 버니 경제 공부 잘못된 열등생이라고 비추어진다. 그러나 이는 1인칭화자인 ‘나’의 무지로 인해 사회주의며 경제에 대해 엉뚱한 결론을 끌어낸 것이라는 것을 작가는 드러낸다. 여기서 바로 아이러니의 효력을 발휘한다. 그가 고모부를 보는 경멸과 증오의 시선은 다음과 같다.⁴⁶⁾

- ① 대학을 나왔어도 전과자 딱지가 붙은 무능인
- ② 암전하고 예쁜 조강지처를 소박하고, 여학생 첩을 얻은 양반
- ③ 출옥하던 날도, 찾아온 본처보다는 학생 첩만 찾던 한심한 이
- ④ 사회주의 운동으로 집안을 망하게 한 장본인
- ⑤ 아내의 은공을 모르는 자
- ⑥ 사회주의를 단념 못하는 주책꾸러기
- ⑦ 죽는대도 코도 안 풀어부칠 양반
- ⑧ 대학교에서 경제를 배우고도 돈 모을 생각은 없고 사회주의 운동만 하고 다닌 양반
- ⑨ 남한테 사패만 끼치고 세상에 해독만 끼치는 사람이니 하루바삐 죽어야 할 사람

1인칭화자의 이와 같은 고모부에 대한 경멸과 증오의 판단은 옳을 수도 있고, 또한 옳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의 증오와 경멸은 그 자신의 사리판단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어떤 피해의식과 열등의식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까닭이다.

46) 유인순, 앞의 논문, 62면.

“아마 모르면 몰라도 그 집안이 그렇게 치패하지만 았았으면 나도 그냥 붙어서 시방쫘은 전문학교까지는 다녔으리라.”

“그러나 웬걸 먹을 재주가 있나용. 글자는 아주 어려운 자만 아니면 대강 알기는 알겠는데 붙여 보아야 대체 무슨 뜻인지를 알 수가 있어야쵸. 속이 상하길래 읽어보자던 걸 작파하고”

인용된 전자는 보통학교 4학년까지밖에 공부할 수 없었던 원인을 고모부에게 돌리는 것이요, 후자는 고모부가 발표한 논문을 읽다가 노여움을 느낀 것이다. 그는 무능한 고모부에 대한 열등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을 전도가 양양한 청년이라고 여겨 미래의 청사진을 고모부에게 제시한다. 그리고 고모부를 자극하고 충고하려 한다. 그의 궁극적인 목표는 ‘내지처녀’를 얻어 ‘내지화’된 삶을 영위하는 데 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언급하고 있는, 조선적인 모든 것의 비난과 성토, 그리고 ‘내지화’가 사실은 무지와 노예 근성의 발현임을 모르고 있다. 즉 그 자신이 아이러니의 희생자임을 어리석게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독자는 그와 같은 인물의 전형을 통해 일제에 아부하고, 물질적 사고에 중독된 한 소인배의 아류를 보게 되며, 그에 대한 비난과 문책의 시선을 던질 수 있게 된다. 그의 소인배적인 근성은 그 자신이 은혜를 입은 아주머니에 대해서도 나타난다. 그는 자신이 대단히 의리가 있고 예절바른 인간인양 떠벌리지만 썸속 빠른 행위가 오히려 그의 위선을 폭로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47)

“어떤 은공이 있으니까 나도 그걸 저바리지 않고 그래서 내 캄냥에는 갚을 만큼 갚느라고 갚은 셈이지요. 허기야 요새도 간혹 아주머니가 찾아와서 양식 없다는 사정을 더러 하군 하는데 실토 정말이지 좀 성가시기는 해용. 그러는 족족 그 수용을 하자면 내일을 못하겠는 걸, 그레 대개 자라라떼기는 하지요.”

1인칭화자는 자신의 나쁜 것을 평범한 것으로, 또는 당연한 것으로 제시

47) 유인순, 앞의 논문, 62면.

하여 아이러니의 기능을 부각시킨다. 한편 아이러니의 희생자는 1인칭화자만이 아니라 대학을 나오고, 본부인을 소박했다가 결국은 본부인에게 와서 얹혀있는 고모부도 해당된다. 그는 부인의 지극한 정성을 아낙네의 당연한 자세로 치부해 버린다.

“고생을 낙으로, 그 쓰라린 맛을 씹고하면서 그것에서 단맛을 알아내는 사람도 있으리라. 사람마다 있는게 아니라 사람마다 무슨 일이고 진정과 정성을 꼬박 거리다가 쓰면 그렇게 되는 법이니라. 그러니까 그쯤되면 고생이 낙이지, 너희 아주머니만 두고 보아도 고생이 고생이면서 고생하는게 낙이란다.”

고모부의 자기합리화는 부인의 진정한 정성을 평범한 것으로 만들므로 냉소적으로 작용한다. 다시 독자의 기대는 교란되면서, 고모부의 뻔뻔함은 웃음거리 내지는 조소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미 부분적으로 언급되어 있기는 하지만 1인칭화자의 어조에서 고모아주머니와 고모부는 아주 대조적이다. 동시에 작가가 보는 1인칭화자와 고모부의 경우도 대조적이다. 작가는 1인칭화자의 세계관을 완전 전도시킴으로써 그를 희극화하고 있다. 그리고 당시의 무능한 지식인의 전형으로 고모부를 그리고 있다.⁴⁸⁾

따라서 「치숙」은 조롱과 미움, 냉소가 한가지로 뒤섞여 무능한 고모부에게 던져진 1인칭화자의 공격이다. 동시에 1인칭화자는 일인 하에서 아부하고 맹종·맹신하는 전형적인 당시, 소인배에 대한 작가의 폭로이다. 여기서 독자는 요설가로서 1인칭화자가 제기하는 당시의 무능한 지식인의 전형과 물질문명에 중독된 친일적 소인배의 전형을 보게되는 것이며 이는 비판적 읽기를 통한 소집단 토론을 통한 나와 숙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도록 교수할 수 있는 좋은 풍자적 텍스트라고 볼 수 있다.

3. 풍자소설의 비판적 읽기 교육의 의의

풍자는 말하는 사람의 언표로 드러나는 외형과 속뜻이 서로 어긋나는

48) 유인순, 앞의 논문, 62~63면.

말하기 양식의 하나이다. 말하는 사람의 강한 의도가 드러나게 마련인데,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개는 뒤집어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수 과정에 있어서 학습자는 말의 이면을 읽어내려면 말을 뒤집어 들어야 한다. 즉 이러한 풍자소설의 특성 때문에 본고에서는 풍자소설의 언어적 층위의 특성에 주목하였으며, 비판적 읽기 적용의 가능성이 내재된다는 전제하였다.

그러므로 서술방식과 작품과의 관련성을 먼저 살펴보면, 작가에게 있어서 언어는 의미를 공유하고, 의견을 조정하며, 이념을 실천하는 등 정신활동 전반에 걸쳐 그 작용을 드러내는 것이다.⁴⁹⁾ 의미를 공유한다는 것은 사실의 제시를 비롯하여 새로운 사실의 발견 등에서 남과 공감을 하는 것을 뜻한다. 의견의 조정은 언어를 통한 의견의 조정이고, 수많은 갈등과 의견의 차이를 해결하는 과정에 관여하는 언어의 기능을 뜻한다. 즉 서술방식을 통한 이념의 실천은 작가나 작중인물이 자신의 삶의 방향을 밝히고 신념을 언어로 표명하는 등의 행동을 뜻한다. 이렇게 본다면 작품의 외표적 서술방식, 형식 등 외재적 기능이 단지 의미의 전달이나 소통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해진다. 이는 풍자소설에서 긍정적인 인물들은 의면되고 대신 아이러니를 통해서 당대의 식민지 교육의 모순과, 고리대 금융, 도박과 같은 비정상적인 현실을 고발하는 것에서 그 특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⁵⁰⁾

따라서 풍자소설의 이러한 인물형상화 측면, 서술방식, 언표외적 의미 등 이중적 속성은 일정한 의미가 있다. 그 의미는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데서 그 역할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문학이 사상성 혹은 이념성을 떨 수 있도록 해 준다. 문학이 다른 예술과 달리 이념 차원의 문제, 인간의 윤리 차원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수 있는 것은 바로 풍자소설의 간접적 속성 때문이다. 풍자소설의 시대 반영과 시대 비판의 다층적인 기능을 고려할 경우, 소설의 특성에서 다루는 것처럼 대상으로서의 성격을 넘어서서 실천의 양상을 드러내게 된다. 이는 곧 풍자소설의 이중적 구조

49) 우한용, 『현대소설담론연구』, 삼지원, 1996.

50) 조영식, 「중학교 소설사 교육 연구- 근대 소설사를 중심으로」, 인하대 석사, 1991, 48면.

를 통해 세계를 구성하고 그 세계 안에서 삶을 영위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작가의 서술태도는 그 작가의 세계와 분리하여 이야기할 수 없다.⁵¹⁾ 그러므로 채만식 소설의 풍자의 방법은 식민지 시대 극복의 방법으로서, 정치적, 우회적 역공격법이라는 의미를 지니는 방법의 하나였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작가 채만식의 경우, 풍자는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가는 방법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는 작가의 문학적인 태도 표명과 연관되는 사항이기도 하였다.⁵²⁾ 그러므로 풍자소설 교육을 통하여 학습자에게 작가와 작품과 관련한 윤리적 기준에 대해서 탐구하며, 작품의 의미를 파악하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학습자는 자신의 윤리관의 재정립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창조적 읽기가 가능해질 것이다. 또한 풍자 텍스트를 읽기 수업의 토의 내용의 과제로 선정함으로써 학습자에게 이해의 깊이를 자극시켜 여타 다른 부류의 텍스트보다 비판적 읽기 과정에 적합한 내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앞에서 살펴본 『태평천하』나 「치숙」 같은 작품이 풍자소설의 특성의 하나인 언표의 의미 전도를 통하여 작가는 자신이 말하고 싶은 바를 학습자에게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풍자소설의 의미 전도는 다양한 양상으로 구체화된다. 말하는 주체의 신분, 지위, 사회적 통념 등과 상치되는 언어사용 방식과 거기서 발생하는 의미양상으로 의미전도가 실현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태평천하』에서 윤직원 영감의 말씨는 자신의 나이 신분 등에 어울리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단히 인상적인 부분이 아마 인력거 샅을 짚는 장면일 것이다. 인력거꾼이 ‘치분대로 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윤직원 영감은 그럼 그냥 가라고 응수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인력거꾼에게 “일구이언은 이부지자라네. 암만하여두 자네 어매가 행실이 좀 낫았능개비네!”⁵³⁾라고 하는 부분은 윤직원이 구사하는 언어 특징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그 부분을 보면서

51) 우한용, 「채만식 문학의 언어와 의미의 지평」, 『민족문화연구논총』 3, 인천대 민족문화연구소, 1996, 15면.

52) 우한용, 앞의 논문, p.21.

53) 채만식, 『채만식 장편 소설 태평천하』, 『한국문학』 8, 대유출판사, 1992. 논문에 쓰여진 모든 예문은 이 책을 내용을 재인용한 것임.

학습자는, 윤직원 영감이 참으로 경박하고, 탐욕스러운 인간이라는 느낌을 받게 된다. 그리고 금방 떠올릴 수 있는 속담이 ‘벼룩의 간을 내먹지’ 하는 것이다. 이 말은 바로 윤직원 자신이 한 말이기도 하다. “용천배기 콧구녕 으서 마늘씨를 뽑아먹구 말지, 내가 칙살시럽게 인력거 공짜루 타것능가!” 하는 말을 윤직원 영감이 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은 이러한 말을 하고 싶은 사람은 인력거꾼이고, 그 말은 작가에게 공감하는 책을 읽는 학습자의 심리적 욕구를 대변하는 말이 될 수 있기도 하다.

한마디로 윤직원 영감은 못할 말을 함으로써 책을 읽는 학습자의 의식에 전혀 다른 방향에서 충격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풍채와 신분과 나이에 어울리는 어법이 있게 마련이다. 그것은 일종의 사회적 규범으로, 그 사회의 언중이라면 누구나 따라야 하는 규칙이다. 그런데 윤직원 영감은 그러한 규칙의 반대 방향으로 서술 방식을 택하고 있다. “나만 빼고 어서 망해라”하는 부분, 그가 살고 있는 시대를 가리켜 ‘태평천하’라고 의미 규정하는 부분, 시아버지로서 며느리에게 입에 담기 어려운 욕을 하는 것 등은 의미가 전도된 세계상의 지적이다. 그리고 동시에 그러한 세계에 대한 비판이라는 점에서 이 소설의 주제를 형상화한 풍자소설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의미를 띤다.⁵⁴⁾ 또한 인력거를 ‘타고’가 아니라 ‘쳐억 잡숫고’고 함으로써 이렇듯 이 소설의 서술맥락이 일상적이 아니란 점과 함께 학습자는 자신의 독서습관을 조정하면서 읽어야 한다.

따라서 풍자소설에서의 이중의 언어적 의미와 서술방식 등은 작중인물의 특성을 드러낸다는 일차적인 기능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언어의 구조와 사회의 구조를 상보적 관계로 설정하는 형상화의 방법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이는 작중인물의 심리를 통해 사회구조를 형상화하는 의미가 되기도 한다.⁵⁵⁾ 그러므로 『태평천하』에서 윤직원 영감이 하는 말은 대체로 남이 그를 비판할 때 할 만한 이야기를 자신이 하고 있는 경우라서, 언표와 의미의 관계가 뒤바뀌는 구조로 되어 있다. 즉 학습자는 풍자의 방식을 통하여 풍자를 구사하는 작가의 높은 윤리의식을 요구하게 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⁵⁶⁾ 또한 작가가 윤리의식을 가지고 작중현실을

54) 정석곤, 앞의 논문, 23면

55) 김윤식, 「풍자의 회복」, 『한국근대작가논고』, 인지사, 1996, 19면.

통제할 수 있을 때라야 작중인물의 왜곡된 언어를 학습자는 정상적인 의미로 전환하여 수용할 수 있게 된다.

「치숙」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아저씨를 비판하는 조카의 이야기를 정당한 것으로 수용한다면 이는 독서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된다. 열등한 인물이 열등한 인물을 비판하는 것을 작가가 적절히 통제함으로써 진정한 의미가 살아나는 것이다. 즉 이 작품은 부정적 인물을 화자로 등장시켜 긍정적 인물의 장점을 비웃고 조롱함으로써 역으로 자신의 병(病)을 드러내도록 한 고도의 반어적 수법을 사용한 작품이다. 그래서 그의 풍자 소설 중 풍자성이 뛰어난 우수작으로 평가받기도 한다. 그러나 부정적 인물의 시점에서 한 이야기 전개가 긍정적 인물의 성격이나 사고를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못하고, 오히려 인물의 사고나 성격이 한층 생생하고 설득력 있게 전달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자칫 풍자 대상이 진술된 그대로의 '치숙(痴叔)'으로 착각될 수 있는 가치관의 혼란을 빚을 수 있으므로 전술한 평가가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을 학습자가 제대로 이해하고 내면화하기 위해서는 비판적 읽기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서 작품 감상을 해나갈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학습자는 여기서 풍자소설의 이해에 있어 작가나 학습자가 지적인 통제력을 지녀야 한다는 점을 알게 된다. 학습자는 『태평천하』에서는 현실의 모순을 풍자의 수법으로 그리고 있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과 윤직원의 진노를 사는 것은 손자 중학이 사회주의 운동에 참여했다는 것에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는 현실이 풍자의 대상으로 되어 있고, 윤직원의 진노가 마찬가지로 풍자의 대상이 된다면 작가가 겨냥하는 중심적인 의미는 윤직원의 진노 반대편에 놓이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점을 학습자에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채만식의 풍자소설은 부정적 인물을 전면에 내세우고, 아이러니적 상황을 제시하며, 반어적 어법으로 이면적 의미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학습자에게 이러한 장르적 특성은 그 소설 교육적인 면에서 보다 능동적, 비판적으로 작품을 이해하는데, 효과적인 텍스트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 비판적 읽기 교육에 있어서 텍스트 선정 문제에

56) 김윤식, 위의 논문, 1996, 19면.

있어 풍자 텍스트의 교육적 의의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비판적 읽기’를 통한 풍자소설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판적 읽기를 수용하여 작품을 읽는다면, 학습자들이 소설을 읽어 나가면서 능동적으로 텍스트에 참여하여 작품의 의미를 읽어 나갈 수 있게 된다.

둘째, 비판적 읽기를 통한 소설 교육은 학습자들의 소설 이해와 감상 능력을 신장을 위한 목표를 통하여, 일정한 원리의 정립을 통해 일관된 원리를 제공함으로써 내용을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셋째, 소설의 형식과 의미를 포괄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작가의 현실인식과 텍스트 구조, 독자를 연결하는 매개체로서 형식적·내용적 요소를 이해하는데 기여한다.

IV. 등자소설의 비판적 읽기 교육 방법

1. 등자소설의 비판적 읽기 전략

앞서 살펴보았던 스미스와 로빈슨(N. B. Smith & H. A. Robinson, 1980)의 읽기 과정에서 4단계의 이해발달영역 중에서 비판적 읽기와 창조적 읽기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학습자 사고 내부에서 상호작용과정을 일으키며, 학습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왜냐하면, 독자가 판단하자마자 (비판적 읽기), 얻어진 정보를 종합하거나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창조적 읽기)를 결정하기 위한 필요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텍스트 내에서 비판적 읽기는 문자적 이해와 해석을 포함하면서 넘어서는 높은 수준의 이해 활동이며, 창조적 읽기의 출발점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⁵⁷⁾

또한 소설의 교수·학습은 텍스트 내에서 학습자들의 다양한 참여가 가능하다. 그리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탐구하여 학습자의 소설 감상 능력의 신장 및 자발적인 소설 감상 능력과 토의 능력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소설 이해와 감상은 학습자의 지식이나 경험이 소설 해석의 원리에 있어 전이력을 지녀야 한다. 그런 까닭에 작품의 의미 해석을 심도 있게 분석하게 위해서는 바로 비판적 읽기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즉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소설 지도가 소설을 학습하는 학습자의 능동적이고도, 적극적인 참여와 반응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학습자의 지식이나 경험의 습득에 있어서 학습자의 능동적 의미 구성활동이 필요하며, 그것을 위한 기준 설정이 성립되어야 한다. 그런 까닭에 비판적 읽기는 일정한 논리적 근거를 필요로 하는데, 비판의 준거에는 분석적 요소와 평가적 요소가 바로 그것이다.

비판의 평가력을 중심으로, 그의 내부에 있는 경우로써 내용이나 표현과

57) 전점영, 앞의 논문, 28면에서 비판적 읽기란 글을 읽는 동안이나 후에 비판적 사고를 이용하는 읽기로써, 글을 분석하여, 그 가치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능동적인 읽기이며, 따라서 비판적 읽기는 독자에게 판단하고 평가를 요구하는 수준의 물음을 던지는 것이다.

관련된 기준(내적 준거)과 외부에 있는 경우로써 글이 존재하는 상황과 관계된 기준(외적 준거)을 중심으로 한 기준이 있다. 문학 작품의 경우는 이 두 가지 준거를 적절히 활용하여, 비판에 초점을 맞추어 글을 능동적으로 읽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비판의 평가력을 중심으로 한 비판적 읽기 지도 내용의 준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비판적 읽기 지도 내용 준거>

<p>☐ 내적 준거에 의한 비판</p> <p>내부의 조직 원리와 관계된 기준, 즉 글의 표현이나 내용에 대하여 부분과 전체관계를 중심으로 비판하는 기준을 말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절성의 기준 : 어휘, 문장, 말투 및 구조와 문제에 접근하는 시각 및 전개 등을 판단한다. · 유기성의 기준 : 부분과 전체의 관계에 있어서의 일관성, 통일성, 응집성 단계성을 판단한다. · 타당성의 기준 : 내용의 타당성과 판단, 주제를 이끌어내는 과정의 타당성을 판단한다.
<p>☐ 외적준거에 의한 비판</p> <p>글이 존재하는 상황과 관계된 기준, 즉 일반적 진리, 사회, 시대적 상황, 독자의 배경지식 등과 관련하여 글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뢰성의 기준: 글의 내용이 사회적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수용 가능한 것인가, 필자의 처지와 관점이 옳은 것인가, 그의 주장이 윤리적 기준에 옳은가 등을 판단하는 것이다. · 효용성의 기준: 필자의 의도나 목적이 독자를 통하여 얼마만큼이나 성취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글의 내용이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유용성), 독자들에게 심미적 가치를 주는가(심미성)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 · 공정성의 기준: 글이 담고 있는 생각이 여러 사람에게 두루 보편적이며 수용 타당하며, 공감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을 말한다.

문학교육에 있어 소설의 현실 인식에 대한 논의는 주로 작품이 당대 사회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검토되어 왔다. 이들 내용을 중심으로 소설의 현실 인식을 탐구하기 위해서는 소설과 현실이 맺는 관계가 더욱 밀접하다는 점에 비추어 보아야 한다. 즉 비판적 읽기 전략의 기준 설정은 작품 세계의 다양한 가치와 갈등을 고려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소설의 현실 인식의 정당성 여부에서 반영은 일차적으로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문제는 소설이 형상화하는 세계를 얼마나 '형식적 집중' 속에서 구현하고 있는가일 것이다. 그러므로 소설교육에 있어 비판적 읽기 전략을 위한 형식적 측면의 기준설정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비판적 읽기의 범주를 내적 준거에 의한 기준과 외적 준거에 의한 기준 등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비판적 읽기의 하위 범주의 기준에 있어, 내용의 적절성과 타당성 등의 판단이 문학 작품에 작용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문학 작품이기 때문에 비판적 관점에 의한 비판적 읽기가 적용됨으로써 학습자의 능동적인 자기주도적 문학 읽기가 가능해져야 할 것이다. 사실 지금까지 이루어진 문학 교육에 있어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접근보다는 단순히 정의적인 측면에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볼 때 '비판'이 곧 비평의 의미를 내포한다는 진제를 토대로 한다면 문학교육의 비판적 읽기 준거가 제시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문학, 즉 소설 텍스트에만 적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몇 가지 준거를 추출하여 그 내용을 중심으로 소설 텍스트 이해를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비판적 읽기의 준거 중에서 외적 준거에 의한 텍스트 판별은 '사회'라는 외적 상황을 통한 사고의 확대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타당하고, 용이하다. 외적 준거에 의한 가치 평가는 곧 학습자에게 있어 텍스트의 의미를 내면화하는 데 상승 작용을 일으켜 줄 수 있는 과정이 된다. 그러므로 풍자소설이 문학 작품임을 감안하여 내적 준거와 외적 준거에 따른 판단을 문학적 상황맥락이라는 특징에 맞추어 적절히 대입하여 읽어 나가야 할 것이다. 즉 이러한 비판적 읽기의 평가의

하위범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표 4 비판적 읽기의 하위 범주58) >

	적절성의 기준에 의한 비판	유기성의 기준에 의한 비판	타당성의 기준에 의한 비판
내적 준거에 의한 독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관점, 표현, 소재 등이 참신한가? ② 표현하고자 하는 실상이나 정서가 얼마나 적절하게 표현되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배경이나 상황을 적절하게 설정했는가? ② 글의 내용이나 조직, 표현 등이 목적에 맞게 되었는가? ③ 글의 단계에 맞추어 적절하게 조직되었는가? ④ 목적, 관점 등이 통일성을 가지고 서술되었는가? ⑤ 함축적 의미, 구조, 표현 기교,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표현되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잘못된 인과 관계를 이루지는 않았는가? ②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의심의 여지가 있는 것은 아닌가?
	신뢰성의 기준에 의한 비판	효용성의 기준에 의한 비판	공정성의 기준에 의한 비판
외적 준거에 의한 독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글에서 다루는 내용이 사실에 부합되는가? ② 사회적 통념에 부합되는 내용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우리의 삶에 필요한 요소를 갖추고 있는가? ② 독자에게 즐거움을 제공할 수 있는가? ③ 삶의 지혜(교훈)를 제공해 주는 내용인가? ④ 말이나 글에 담겨 있는 생각이 윤리적인 가치 기준에 부합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다른 사람도 수용 가능한 내용을 지니고 있는가? ② 다른 배경이나 분위기, 상황 등에서도 공감할 수 있는 것인가? ③ 다른 여러 상황에 두루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풍부한 의미를 지녔는가?

58) <표4 비판적 읽기의 하위범주>는 문학이라는 한 장르로서의 소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명적, 설득적 텍스트가 아닌 문학적 텍스트에 해당하는 내용의 범주로서 적절히 변용하고, 추출하여 작성한 것이다. 그리고 이 하위 범주는 본고의 IV장 풍자소설의 비판적 읽기 교육의 실제에 적용하는 준거가 되며, 이를 통해 작품의 내용을 적용하여 교수-학습방법에 이용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위의 <비판적 읽기의 하위범주>를 참고하여, 문학작품을 읽는다면 내용 이해뿐만 아니라 작품의 구조면, 인물 형상화면, 주제 면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소설이라는 이해의 대상에서 풍자텍스트 내에서의 풍자 대상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함께 그 대상이 작품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풍자 주체와의 관계와 그 표현의도 속에서 구조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산만하게 펼쳐진 풍자는 그것이 구조화되지 않는다면 그 의도를 파악하기가 어렵게 된다. 특히 소설은 특수하게 구조화된 사건들이 얽혀서 하나의 서사적 발현체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풍자적 텍스트 내에서 의미설정은 작가의 풍자적 의도의 지배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즉 풍자소설의 경우 그 목적이 객관적인 지시의 전달이 아닌 글쓴이가 하나의 주제를 통하여 당대현실의 불합리를 꼬집으려는 점에서, 그 이면에 숨겨진 의도를 비판적으로 파악하고, 나아가 창조적 읽기를 통하여 내면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큰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2. 풍자소설의 비판적 읽기 모형 개발⁵⁹⁾

비판적 읽기 전략은 읽기 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읽기 과정에 사용되는 전략을 지도하는 것이어야 한다. 또 이 전략을 지도할 때는 읽기 과정에 비판적 읽기 전략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를 설명하고 보여주는 것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 또한 학습자의 텍스트 읽기를 통한 지도가 진행되는 동안 비판적 읽기 전략에 대한 학습자들의 자발적인 계획과 점검을 가르치고 학습자들이 그 분석 전략을 유지하고 일반화할 수 있게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까닭에 학습자들에게 충분한 내면화의 경험을 제공하

59) 최지현, 「문학감상교육의 교수학습모형 탐구」, 서울대 석사, 1998., 27면에서 비고츠키(Vygotsky)의 견해를 원용하면, 내면화란 타인에 의한 조정(other regulation)이 자기조정작용(self regulation)으로 변용되는 과정을 뜻하며, 이 과정이란 다른 아닌 사회적 발화가 내면화되는 과정이다. 그런데 감상 행위는 표현되었든 아니든 간에 이렇게 내면화되는 과정에 나타나는 의사-사회적 언어(quasi-social speech)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이를 지도하는 데에는 직접 교수법을 바탕으로 한 교수 학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비고츠키(Vygotsky, 1979)에 따르면, 인간의 사고는 인간의 실제적 활동으로부터 나온다고 한다. 이 말은 학습자가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언어를 통해 의미화 과정을 거치며 내적인 재구성을 갖게 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비고츠키 자신은 이를 내면화(internalization)이라 불렀으며, 이 과정이 다음과 같은 일련의 전환들로 구성된다고 주장하였다.⁶⁰⁾ 비고츠키의 내면화 개념은 그것이 가치의 수용이나 축적과 관련된 결과적 성격을 갖기보다는 학습과 발달의 기제로서 과정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어떤' 가치를 수용하여 자기화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가치를 수용할 수 있도록 외적 조작(실재적 상호작용)을 '기호화하는' 것이다.⁶¹⁾

내면화는 공감적 조정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교수학습전략이며 또한 그것이 사용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재인된 정서어휘체계와 상상된 체험 속에서의 역할 설정이 내면화를 통해 학습자 내부에서 통합된다. 학습자를 중심으로 말하면, 내면화는 지금까지 교사와 함께 수행해 왔던 각 단계의 전략들을 자신의 내면에서 다시 수행하며 재구성하는 것이라 하겠다. 교사가 던졌던 질문들을 자신을 향해 다시 던지며, 학습자는 상상된 체험을 감상으로 이끄는 과정에서 동원해 온 전략들을 자신의 독립적인 감상 활동을 위해 동원하는 인지 기능으로 전환시킨다. 여기에 내면화의 교육적 의의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내면화를 통한 모형개발은 독립적인 감상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전략이며, 주어진 문화적 합의 밖에서도 작품을 향유할 수 있게 하는 기반이 된다.

본고에서 제시하는 교수학습 모형은 기본적으로 직접 교수법⁶²⁾을 채용

60) 최지현, 앞의 논문, 28면.

61) 최지현, 앞의 논문, 29면.

62) 송복승, 「'학습자의 활동'을 중심으로 한 교과 운용에 대하여」, 국어교육연구, 1996, 49면에서 직접 교수법은 초기에는 교사가 학습 활동의 주체이나, 단계가 진행될수록 학습 활동이 학생에게 진이되는 양상을 보여 주고 마지막 단계인 '활동하기 단계'에서는, 학생이 학습 활동의 주체가 되어 실제로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즉 학생들이 과제를 실제로 수행하는 단계가 성공적일수록, 학생들의 언어적 사고력을 신장시킨다고 하는 국어 교육의 목표에 도달할 가능성도 크다고 할

	비판적 읽기 전략 익히기 1	학습 형태
2단계 구조화된 연습	교사의 설명 위주의 활동으로 의미작용 구조의 개념과 비판적 읽기 전략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전략의 활동을 직접 시범을 통해 보여준다. 그리고 이를 이용하여야 하는 목적, 방법, 이유, 시기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설명하기) 직접시범 보이기



	비판적 읽기 전략 익히기 2	학습 형태
3단계 지도된 연습	교사의 적극적 관여 하에 질문 형태로 제시된 전략들을 통하여 교사의 시범을 모방하며 연습한다. 교사는 학생들의 반응을 유도하고 반응에서의 오류를 전략활용의 과정적 측면에서 교정한다. 뿐만 아니라 예측될 수 있는 오류를 주의시킴으로써 학생들의 독립적 활동을 돕는다.	탐구학습



	비판적 읽기 전략 익히기 3	학습 형태
4단계 독립적 연습	학생 활동 위주의 학습 활동으로 교사는 학생들의 반응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보다는 학생들로부터 요청된 활동을 통해 오류를 교정한다. 학생들은 지금까지 누적된 연습과 오류 교정활동을 통하여 전략을 내면화하고 스스로 능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소집단 토의

위의 비판적 읽기 전략에서는 각 단계에 적절한 학습형태를 함께 제시하여 교수 학습 모형 적용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도입 제시 1단계에서는 학습 형태로 탐구수업을 제시하였다. 학생들에게 자신이 흥미를 갖고 있는 탐구 문제를 직접 선택하도록 하고, 문제에 대

한 해결방안을 스스로 찾아보도록 할 때, 학생들의 지적 탐구에 대한 호기심은 유발하게 된다. 호기심은 학습동기를 유발하는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학습 동기 유발을 주목적으로 하는 도입 부분의 수업 형태로 탐구 수업 형태가 적절하다.

구조화된 연습의 2단계에서는 학습 형태로 강의 수업을 제시한다. 텍스트의 의미 작용 구조 분석과 비판적 읽기 전략에 관한 이론을 짧은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강의 수업형태가 효과적이다. 또한 교사가 전략 활용의 시범을 보이는 데에도 강의 수업형태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지도된 연습의 3단계에서는 1단계와 마찬가지로 탐구 수업의 형태가 제시되었다.

탐구 수업의 일반목표는 학생들로 하여금 질문을 제기하거나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내는데 필요한 지적 훈련이나 지적 기능을 개발 시켜 줄 수 있도록 학생들을 도와줌으로써, 학생들에게 인과적 추론 능력을 신장 시켜 줄 수 있다. 이러한 탐구 수업의 목표와 특성은 비판적 읽기 전략을 내면화하여 읽기 기능을 신장시키려는 본고의 논의와 부합되는 것으로 탐구 수업은 읽기 기능의 신장 뿐 아니라 비판적 사고능력을 함께 기를 수 있으면 나아가 창조적 읽기를 가능하게 하는 수업형태이다.

독립적 연습의 4단계에서는 학습 형태로 토의 수업을 제시한다.

간단한 암기나 이해가 아니라 깊이 있는 이해, 비판적 사고, 평가력이나 종합력 등 보다 높은 수준의 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다. 학급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토의보다는 소집단 토의법을 통해서 본고의 비판적 읽기 전략을 내면화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따라서 토의 수업은 학생 스스로가 자신이 읽은 글을 분석하고 종합하고 그 의미와 의도, 가치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비판적 읽기 지도의 목표 달성에 적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V. 풍자소설의 비판적 읽기 교육의 실제

1. 『태평천하』의 교수절차

『태평 천하』는 윤씨 일가의 4대에 걸친 가족사를 통해 한말에서 일제 강점기 하에 이르는 기간 동안 한국 사회의 변천을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날카로운 풍자적 감각과 현실 비판 의식을 바탕으로 당대 현실을 반영적 수법으로 형상화함으로써 현실 의식을 드러내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작품의 가장 큰 의의로 꼽을 수 있는 것은 붕괴해 가는 한 세대의 전형적 창조하는 데에 성공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고, 가족사 소설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바탕으로 작품에 접근한다면 보다 심화된 감상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서는 논리적 기준인 내적·외적 준거가 필요하다.

풍자소설 태평천하를 내적·외적 준거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내적 준거에 의한 비판적 독해

1) 적절성의 기준에 의한 비판

① 글의 어휘는 내용에 꼭 들어맞거나 새로운 느낌을 줄 때 적절한 어휘라고 할 수 있다. 어휘의 적절성이라는 기준에서 적절한 어휘로 대상을 표현하고 있는 특징을 본문과 관련하여 살펴본다.

· 『태평천하』라는 말이 풍자하는 내용을 밝혀보고 어휘의 적절성에 비추어 제목으로 적절한가?

윤직원 영감이 자신의 부와 안전을 보장해 주는 일제의 식민지 통치를 '태평천하'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실상 식민지 치하의 민족 전체의 삶은 그 정 반대의 상황에 놓여 있음을 말한다. 따라서 태평천하라는 어휘의 제목은 글의 내용과 관련하여 적절하지 못하나, 이는 작가의 풍자적 태도에 기인한 것이다.

- 『태평천하』에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적절성의 기준에서 판단하면서 내용을 정리해보자.

갈래는 장편 소설이며, 배경은 1936~37년의 서울 계동 윤직원 집과 그 주변이 주무대로 등장한다. 성격은 풍자적. 비판적이며, 따라서 사회 비판 소설적 경향을 띄고 있다. 문체는 판소리 사설 문체로써, 해학적이고 풍자적인 문체이다. 이를 통해 일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윤직원의 가족사를 통하여 부정적 인물들로 바라보면서 식민지 시기 퇴락한 삶의 비판하는 주제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이 작품의 배경과 성격을 통해 작품의 의미를 유추해내기가 용이하므로 적절성의 기준에 부합된다.

② 관점, 표현, 소재 등이 참신한가?

이 글 전체에서 사용된 어휘와 표현 방법은 반어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반어(아이러니) 수법을 통한 부정적 인물의 희화화(戲畫化)에 의해 실현을 통해 작가는 작중 인물을 겉으로는 추켜세우는 것처럼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부정적 측면을 더욱 드러내어 그 인물을 웃음거리가 되게 만들면서 추악한 일면을 폭로하고 있다. 부정적인 인물의 성격이 강할수록 풍자의 농도는 더욱 극적으로 부각되어 나타난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과 표현은 동시대에 창작된 다른 소설에 비해 참신성을 획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소재 선택 역시 1930년대를 살아가는 중산층의 가족의 모습을 통해 당시 사회현실을 사실적으로 드러냄으로써 현실성을 가진다.

③ 표현하고자 하는 실상이나 정서가 얼마나 적절하게 표현되었는가?

윤직원 영감을 통해 표출되는, 돈과 세속적 영달에만 집착하는 주인공의 형상을 통해 현실의 진정한 본질을 깨우치는 풍자이다. 이 수법을 구사하는데 작가는 판소리의 형식을 이용하며 활동 사진의 변사 역할을 하는 화자를 등장시켜 주인공의 행태를 설명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한다. 또한 독자에게 직접적으로 던지는 말투 및 경어체의 표현으로 독자와의 거리를 좁히므로 인해 감정의 공유를 획득할 수 있으며, 독서의 재미를 더해 준다.

2) 유기성의 기준에 의한 비판

① “태평천하” 성격은 무엇이고, 글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염상섭의 ‘삼대’, 김남천의 ‘대하’와 더불어 1930년대의 대표적인 가족사 소설이다. 또한 성격 묘사에다가 사회 전체의 실상을 암시하려는 성격 소설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큰 특징으로는 일제 강점하의 현실을 태평천하라고 믿는 주인공의 시국관에 대한 풍자를 한다. 즉, 부정적인 인물들로 구성된 한 가족의 삶을 통해 한말, 개화기 세대의 가치관을 분석, 일제 강점하의 사회 현실 극복 방식을 풍자적으로 암시해 주고 있는 풍자 소설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글 전체적으로 구조적 아이러니를 통해 유기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② 배경이나 상황을 적절하게 설정했는가?

일제 시대의 지주이자 고리 대금 업자인 윤 직원 영감의 몰역사(沒歷史) 의식과 그 집안이 몰락해 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즉 식민지 시대의 사회적 구조 속에서 살고 있는 여러 유형의 인물들을 통해 전통적 사회의 몰락 과정을 그리고 있다. 또한 새로운 사회형성의 성립시기의 가치관의 혼란과 올바른 국가관을 가지지 못한 인물의 파국적 상황을 당대 현실과 관련하여 적절하게 설정하고 있다.

③ 인물의 성격과 인물간의 갈등에 의한 구성이 적절하게 설정되었는가?

· 「태평천하」에서 등장하는 인물의 성격 제시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다.

윤직원 영감은 늘부형을 계승한 회화적 인물로 그려져 있다. 소설 전편을 보면 현실 보수적인 윤직원과 이상주의자인 종학이 대립된다

상훈은 유학까지 다녀온 지식인이나 삶의 목표를 상실한 그이기에 타락하고 방탕한 삶을 살게되고 치산에 관심이 없는 생활로 아버지로부터 금치산 선고를 받으나 아버지의 도장을 위조해서 쓴다. 일제하의 지식인의 모습이기도 하다.

중수는 할아버지가 군수 가되라는 기대를 저버리고 아버지와 같은 타

락한 삶을 산다

종학은 이 작품에서 가장 긍정적인 인물로 할아버지 윤직원이 유일한 희망을 지니고 있다. 동경유학생으로 사회주의 운동에 참여함으로써 할아버지에게 참담한 패배를 안겨준다

경손은 할아버지가 열올리고 있는 15세 동기 춘섭과 애인 사이다

④ 함축적 의미, 구조, 표현 기교,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표현되었는가?

· ‘망진자(亡秦者) 호야(胡也)나라’

이 작품에서는 윤 직원의 집안을 망칠 사람이 결국 외부의 부랑당패가 아니라, 오히려 자식들 특히 손자 종학임을 의미하면서, 작가는 윤직원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

· ‘소릿적 윤두꺼비 시절에 자기 부친 말대가리 윤용구가’

작중 화자의 서술에서 이와 같이 등장 인물들이 천박한 별명으로 지칭되는 것은, 화자가 그들에 대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태도를 전혀 취하지 않음을 드러낸다. 곧 문체에서도 작자의 풍자적 태도가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 ‘당시의 나한테 불리한 세상에 대한 격분된 저주요 겸하여 웅장한 투쟁의 선언이었습 니다.’

당시(반세기 전) 윤 직원과 그 부친은 평민 출신으로 한창 부를 축적해 가고 있었다. 그러나 봉건적인 계급 제도가 철폐되지 않았던 당시에 하층민인 그들은 지배층인 양반이나 지방 수령들에게 술하게 재산을 빼앗겼고, 또 화적들에게도 그러하였다. 즉, 제도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당시의 세상은 그들이 돈을 벌고 부를 쌓아 가는 데 불리하기만 하였다. “우리만 빼놓고 어서 망해라.”는 윤 직원의 외침을 그러한 불리한 세상을 저주하는 말인 동시에, 그 세상과 싸워 이기고야 말겠다는 투쟁의 선언이었던 것이다.

· ‘아 글씨, 군수 되구 경찰서장 되구 허미년, 느덜 좋구 느덜 호강이지, 머 그 호강 날 주냐?’

윤 직원 자신의 희망을 손자들의 희망인 것처럼 표현한 구절이다. 자신의 희망을 강제로 억박지르는 윤직원의 본질이 폭로되어 풍자적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 ‘멋허리오냐? 돈 달래리오지?’

윤 직원이 아들 윤창식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한 지를 보여 준다. 손자들에 대해서는 아직 자신의 희망대로 되어 주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아들 창식에게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도리어 적대감을 느끼는 것이다. 그러나 창식 또한 윤 직원의 부정적인 면을 폭로 비판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그 역시 풍자의 대상인 것이다.

· ‘이윽고 으르렁거리면서 잔뜩 꼬글뜨리고 있습니다.’

충격에 따른 행동 묘사로 위기감에 대응하여 신속히 자기 방어 자세를 본능적으로 취하는 모습이다.

· ‘시방 종학이가 사회주의를 한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이 진실로, 옛날의 드세던 부랑당패가 백 길 천 길로 침노하던 그것보다도 더 분하고, 물론 무서웠던 것입니다.’

사회주의에 대한 적대감을 강하게 드러내는 인물의 내면 심리 서술로 일제에 대한 왜곡된 역사 인식이 내재되어 있다.

· ‘거리거리 순사요 꼴꼴마다 공명한 정사(政事),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어.’

일제 강점하의 현실에 기꺼이 순응하고 만족해 하는 친일적 지주 계층의 인식을 드러내어 정신적 타락에 대한 개탄을 의도하고 있다.

· ‘몹시 사나운 그 포효가 뒤에 처져 있는 가련들의 귀에는 어떤지 암담한 여운이 스며들어, 가득히 어둔 얼굴들을 뻐뻐상고.’

윤 직원의 포효에 암담한 여운이 스며들어 있는 것을 느끼는 그들의 반응에서, 그 가족의 앞길이 순탄치 않다는 예감을 받는다. 그것은 윤 직원 가족의 붕괴를 암시한다.

⑤ 『태평천하』의 글의 내용과 잘 어울리는지 이러한 문장 표현의 특색을 유기성의 기준에서 판단해보자.

※ 유기성의 기준이란, 부분과 전체의 관계에서 표현·태도·전체 등의 일관성, 통일성, 완결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말한다.

이 글은 서술과 묘사를 적절히 배합하여 늘어진 판소리 사설조의 문체로, 논리적이기보다 독자와 감정을 공유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독백적인 판소리 사설조 문체로 풍자적 성격과 해학적인 성격을 고조시켜 준다. 또한 이것은 냉소적 비꼼에 경어체를 사용한다든지, 작가가 직접 개입해서 논평하는 부분이나, 반어·회화·풍자적 문체 등을 판소리 사설 문체와 관련지을 수 있다.

· 글의 내용 구조의 유기성의 기준에 비추어 구성의 체계성이 적절한가?

글의 구성 (5단구성)

발단 - 인력거를 타고 와서 그 값을 깎으려고 하는 윤직원 영감의 행태

전개 - 윤 직원 영감 집안의 내력과 치부 과정

위기 - 둘째 손자 종학에 대한 윤직원 영감의 기대 윤직원 영감의 아들 창식과 큰손자 종수의 타락하고 방탕한 생활

결정·결말 - 둘째 손자 종학이가 사상 관계로 일본 경시청에 피검되었다는 전보에 충격을 받는 윤직원 영감

따라서 구성은 배금주의자 윤 직원이 기대를 저 버린 자손들의 행동으로 인해 깨닫고 좌절하는 파국적 구성을 취한다. 그래서 윤직원이라는 인물의 파행과 부조리함을 부각시키는데 내용과 유기적으로 상관되는 구성을 취한다고 할 수 있다.

· 유기성의 기준과 관련시켜 볼 때 “태평천하” 풍자 대상은 누구라고 판단할 수 있는가?

부정적 인물의 성격이 강할수록 풍자의 농도는 심해지는데, 이 소설의 경우는 ‘윤직원’이 중요한 풍자 대상이 된다. 작품에서 풍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람은 윤직원의 둘째 손자인 종학이 뿐인데, 이는 작가가 종학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종학은 소설 전면에서 등장하지

않고 윤직원의 욕망의 표현 속에, 그리고 작품 후반부의 '동경에서 온 전보' 속에 잠깐 나타날 뿐이다.

3) 타당성의 기준에 의한 비판

① 글 내용에서 부분과 전체의 주제를 이끌어내는 논거가 타당하며 거기서 이끌어내는 과정을 판단하는 타당성의 기준에서 주제와 관련하여 '종학'의 역할과 의미는 적절히 제시되고 있는가?

부정적인 인물의 성격이 강할수록 풍자의 농도는 심해지기 마련인데, 이 작품의 경우는 윤 직원 영감이 그 중요한 풍자 대상이 되고 있다. 이 작품에서 풍자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는 인물은 '종학'인데, 이는 종학이라는 인물에 대해 작가가 긍정적 시각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는 소설 전면(前面)에 등장하지 않고 윤직원 영감의 욕망 표현 속에, 그리고 그 작품 후반부의 '동경에서 온 전보' 속에 잠깐 나타날 뿐이다. 물론 등장 인물의 출현 빈도수가 그 인간적 가치의 경중(經重)에 비례하지는 않겠지만, 작가가 지니고 있는 긍정적 미래관을 구현시키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작품전체에서 내포하는 풍자적 현실 비판의식 접근에 있어 타당성이 결여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종학'의 존재가 주제를 내포하는 인물이지만 부수적 인물로서의 역할에 그치고 마는 단점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②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의심의 여지가 있는 것은 아닌가?

작가는 윤직원 영감이 현실을 태평천하로 파악하도록 설정하였다. 단순히 친일분자에 대한 야유와 비판보다는 주인공을 평범하고 이기적이고 무지한 인물을 설정하고 있다. 이는 이 시기의 현실이, 일제치하의 억압적인 탄압과 문학계의 검열로 인한 소극적인 저항으로 밖에 표출될 수 없었던 까닭이다. 즉 작중인물들의 소극적이며, 평상적인 인물 형상화 방법은 작가가 적극적으로 현실을 비판하고 항의할 수 없었던 까닭에 기인한 것이다. 그래서 작가는 거시적인 시대의식으로 현실을 개혁하고자 하기보다는, 소극적이고 개인적인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소극적 저항과 비극적 결말이라는 한

계점을 지닌다는 점에서 내용이 불충분한 점을 인식할 수 있다. 따라서 적극적인 저항을 보여줄 수 있는 다른 작품들, 카프문학으로서 최서해의 흥업과 같은 작품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2) 외적 준거에 의한 비판적 독해

1) 신뢰성의 기준에 의한 비판

※ 신뢰성의 기준으로 볼 때, 신뢰성은 글의 아름다움을 위해 사실을 지나치게 과장하지 말아야 한다. 작가의 입장을 위해 과장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도록 한다.

① 글에서 다루는 내용이 사실에 부합되는가?

이 글의 내용에서 윤직원 일가의 인물 유형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인물 유형보다는 전형적 인물 유형으로서 타락하고, 도덕적 양심이 결핍되어 있는 인물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특히 윤직원에 대한 묘사와 그의 행동에서는 과장된 인물의 모습을 통하여 독자에게 웃음을 유발하고 있는데, 이는 작가의 의도를 드러내기 위한 수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당시의 인물 중 타락하고, 부패한 몰주체적 인물만을 묘사했다는 점에서는 사실성이 저하되며, 신뢰성의 측면에서 과장된 부분도 있다.

② 사회적 통념에 부합되는 내용으로 신뢰성을 주는가?

이 작품은 부정적 인물들로 구성된 가족을 통하여 한말과 개화기, 그리고 일제 강점기 세대 사이의 가치관의 변화와 현실 대응에 따른 행동 유형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리하여 바탕이 옳지 못한 가정이 어떻게 허물어져 가고 있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고 있다. 이를 통해서 식민지 사회에서 무엇이 문제이며 무엇이 생성되어야 할 것인가를 암시하려 하였다. 즉 사회적 통념에 비추어, 전면에 윤직원을 내세워 작가는 왜곡된 사회와 그 속의 부정적 인물을 조롱하고 있는 것이다. 일제 강점하의 현실을 태평천하라고 믿는 주인공의 시국관을 풍자함으로써 신뢰성을 획득하고 있다.

2) 효용성의 기준에 의한 비판

① 이 글이 독자에게 무엇을 생각하게 하는지 효용성의 기준에서 가치를 판단해 보자.

효용성의 기준이란 그 글이 씌어지고 읽히는 사회·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의미가 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을 말한다. 따라서 효용성의 기준에서 이 글의 가치를 판단해 보면, 이 글에서는 일제치하의 암울한 현실 속에서 억압받고 있는, 피폐한 민족의 삶의 현장에서 오로지 '자신만 잘 살면 된다'는 식의 이기주의적이고, 배금주의적인 민족현실을 꼬집고 있다. 이러한 시대상황 속에서 도덕적, 양심적으로 옳은 삶에 대한 교훈을 독자에게 깨우쳐 준다는 점에서 효용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② 삶의 지혜(교훈)를 제공해 주는 내용인가?

이 작품은 5대에 걸친 가족의 이야기로서 소위 '가족사 소설'의 전형에 드는 작품이다. 또한 성격 묘사에다가 사회 전체의 실상을 암시하려는 성격 소설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 1930년대 말에 한국 사회는 일제의 수탈과 착취에 의해 빈궁화 현상이 계속되어가고 있었다. 윤지원은 늘부형으로서 일제가 조장한 상업자본주의에 기생하여 자신의 부를 늘린 대표적인 인물이다. 작가는 전면에 윤지원을 내세워 왜곡된 사회와 그 속의 부정적 인물을 조롱하고 있다. 즉, 일제 강점하의 현실을 태평천하라고 믿는 주인공의 시국관을 풍자한다

③ 독자에게 즐거움을 제공할 수 있는가?

작중 인물들을 희화화해서 풍자하고 있는데, 이는 작가는 작중 인물을 겉으로는 추켜세우는 것처럼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부정적 측면을 더욱 드러내어 그 인물을 웃음거리가 되게 만들면서 추악한 일면을 폭로함으로써 독자에게 웃음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구조적 아이러니를 통해 부정적 인물이 몰락하는 과정을 골계미를 통해 표출하고 있다. 따라서 풍자문학이 제시하는 진실을 통해 비윤리와 부조리를 부정하여, 구체화한다는 사실과 그것을 드러내는 미

적 효과를 통해 정면 공격에서 빔어지는 마찰을 피한다. 이러한 우회적 방법론으로 교정과 개선을 모색하는 정신을 표방하고 있다는 점에서 감동을 얻을 수 있다.

④ 이 글이 씌어지던 당시의 상황과 오늘날의 상황을 비교하여 효용성의 기준을 통해 작품의 의미를 내면화하여 이해할 수 있다.

※ 이 글이 오늘날의 독자에게 주는 의미를 내적·외적 기준에서 생각하면서, 이 글에서 얻은 감동을 되짚어 보고, 현대의 사회적·역사적 상황에 맞추어 그 가치를 지적해 보도록 한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이 글을 살펴보면, 오늘날에도 이러한 움직임과 같은 인물 유형을 찾아 볼 수 있다. 여전히 우리의 정치현실에서는 자신만 잘 살면 된다는 식의 이기주의와, 물질을 최고로 알며, 인간적 가치를 외면하는 배금주의적 태도를 가진 인물을 살펴볼 수 있다. 따라서 「태평천하」가 풍자하고 있는 대상은 결코 그 시대에만 국한되어 있는 의미가 아니다. 어떤 시대, 어느 곳을 막론하고 현대의 사회적·역사적 상황에 비추어볼 수 있다. 곧 물질 숭배로 인한 인간적 가치의 도덕성과 양심의 타락에 대한 경종을 울릴 수 있다는 의미에서 현재적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⑤ 자신이 비판적으로 읽고 이해한 내용과, 예전에 반성 없이 읽은 일이 있다면 그 내용을 비교해 보고,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한다.

비판적 관점을 유지하면서 읽은 후 글의 내용에 대한 정확한 판별을 통하여 작품을 내면화함으로써, 「태평천하」가 창작된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현실에 대한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데 만약 비판적으로 읽지 않았다면, 단순히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군상에 대한 이해로 그쳤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비판적 관점을 통한 독서 읽기는 작품을 내면화하는데 용이하였다.

3) 공정성의 기준에 의한 비판

① 다른 사람도 수용 가능한 내용을 지니고 있는가?

이 작품은 도시 중산층 타락하고 이기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가장 윤직원의 부조리한 삶의 모습과 잘못 인식된 시국관을 보여준다. 또한 결말 부분에 등장하는 종학이라는 인물의 설정이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가 일본 경시청에 의해 피검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당대 시대현실과 분위기를 짐작하게 해준다. 즉 왜곡된 계급의 사회적 운명이 몰락으로 향하고 있음을 (또는 그래야 마땅한 것임을) 암시하기 위하여 작품의 결말에서는 집안의 기둥인 '종학'이 사회주의자로 검거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그래서 부조리함과 이기적 인물의 몰락이라는 과정은 인과응보라는 보편적 정서를 내포하여, 책을 읽는 독자에게 충분히 설득력을 가지게 된다.

② 다른 배경이나 분위기, 상황 등에서도 공감할 수 있는 것인가?

1930년대 일제 식민치하의 서울의 한 평민 출신의 대지주 집안을 배경으로 한 이 작품에서 윤직원은 당시 신흥 지주계급으로 떠오르고 있었던 상민 혹은 서민 출신 부재지주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이 계급이 식민지 지배 당국과 결탁하여 이른바 '식민지 지주제'라는 독특한 반봉건의 지주적 현실을 만들어내었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부조리한 사회적 현실 속에서 성장한 계급이기에 그 일가의 일상적 삶은 윤리적으로 타락을 면치 못한다. 비록 하룻 동안의 일상적 사태 전개 안에서나마 이 집안의 가계와 그 현재적 풍모는 일제하 대가족 윤리의 붕괴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작품이 이룩하고 있는 이 같은 풍자적, 극적 아이러니의 미학적 달성은 일제치하의 식민지의 혼란함과 암울함, 올바른 가치관의 몰락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나라를 빼앗긴 식민지하의 삶의 모습에 대해 공감하게 함으로써 시대현실을 공유하게 해준다.

③ 필자가 궁극적으로 비판하고자 하는 삶의 형태는 무엇이며, 공정성의 기준에서 볼 때 적절한가?

윤직원 일가로 대표되는 일제치하의 중산층 삶의 부정적 삶의 모습 즉 반민족적이고, 반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삶의 모습을 풍자하고자 한다. 따라서 공정성의 기준으로 볼 때 당시 1930년대 일제 치하의 현실에서는 이

러한 가치관을 지닌 인물들이 많이 양산되었다. 따라서 작품은 공정하게 당시의 인물의 모습을 전형화해서 보여주고 있다.

④ 다른 여러 상황에 두루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풍부한 의미를 지녔는가?

1930년대 일제 치하 현실에서 순수·도피·물역사성, 식민지 현실에 대한 역사 인식의 결여 등으로 우리 문학사는 반공백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채만식의 풍자 소설은 문학이 감당할 수 있는 현실 도전이나 비판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기적 인간이 윤직원 영감의 몰락과 같은 사적 체험을 통해 지배문화 불화 관계에 있는 자아의 문제는 불로 식민지 사회의 제도적 모순과 폐해의 본질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⑤ 글의 내용을 자신이 책에서 읽었거나, 직접 경험한 내용들과 비교해 보면서, 자신과 다른 입장에 처한 사람들의 생각도 추측해보고, 객관자의 입장에서 필자의 견해가 보편성을 가질 수 있는지 비판해 본다

이 글에서 비판하고자 하는 당시 세태의 한 풍속도인 몰주체적이고, 시대 인식이 결여된 인물은 객관적인 상황에서 볼 때 보편성을 지니는 견해이다. 이러한 작가의 견해는 타당성을 획득하면서 독자에게 감동을 주면 새로운 가치를 가지게 하고 있다. 따라서 상황의 개선을 촉구하고, 진실을 열망하도록 추악한 인물상으로 풍자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배금풍조나 이기주의가 편만한 당대의 비뚤어진 세태 또는 풍속을 깨우치는 데 알맞은 전형적 인물들로서 가탁하여 비판했던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풍자의 깊은 뜻이 있고 우회적 방법으로서의 비판의 당위성이 있다.

2. 「치속」의 교수 절차

(1) 내적 준거에 의한 비판적 독해

1) 적절성의 기준에 의한 비판

① 글의 어휘는 내용에 꼭 들어맞거나 새로운 느낌을 줄 때 적절한 어

휘라고 할 수 있다. 어휘의 적절성이라는 기준에서 적절한 어휘로 대상을 표현하고 있는 특징을 본문과 관련하여 살펴본다.

· 「치숙」이라는 말이 풍자하는 내용을 밝혀보자.

‘치숙’이라는 뜻에서 痴는 ‘어리석은 혹은 미치광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즉 ‘어리석은 숙부’라는 뜻으로 1인칭 관찰자인 ‘나’는 숙부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는데 있어 조소하면서, 그의 삶의 태도를 어리석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오히려 작가가 비판하고자 한 인물은 숙부를 바라보는 ‘나’의 일제의 순응적 태도이다. 따라서 「치숙」이라는 제목 설정 역시 반어법을 통해 작중 인물의 어리석음을 풍자한 것이다.

· 「치숙」의 성격은 무엇이며, 적절하게 제시되고 있는가?

식민지의 시대 상황이 사실적으로 묘사되고 있는 소설로서 부정적 인간이 긍정적 인간을 조롱·비판한다는 점에서 이 소설은 이중의 풍자성을 지닌 풍자적 성격이 강한 세태소설, 풍자 소설이다.

② 관점, 표현, 소재 등이 참신한가?

관점에 있어, 3인칭 서술자 대신 1인칭 관찰자 시점을 택하여 지식인의 행동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나’를 화자로 내세움으로써 새로운 효과를 얻고 있다. 이는 <치숙>이라는 작품 제목이 암시하고 있듯이 일제에 야합하고 있는 ‘나’의 피상적인 판단과 천박스러운 논리가 전면에서 나타나는 점에서 서술 방식의 참신함을 획득하고 있다. 즉 일제와 야합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비판되고 그에 저항하는 숙부가 긍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가는 ‘나’를 서술자로 설정하여 숙부의 삶을 바라보도록 한 것이다. 이처럼 부정되어야 할 인간형을 긍정하고 긍정되어야 할 인간형을 부정하는 풍자적 기법을 통하여 날카로운 웃음이 유발된다. 따라서 ‘나’의 삶을 규정하는 물질주의적 가치의 모순성은 참신한 관점과 표현에 의해 역설적으로 비판되면서 작품의 문학적 가치를 일깨워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③ 표현하고자 하는 실상이나 정서가 얼마나 적절하게 표현되었는가?

숙부의 인생은 작품 서두에서 요약적으로 제시되었다. 그는 대학을 나온

뒤 사회주의운동에 투신한 숙부는 5년 동안의 감옥살이 끝에 몹쓸 병만 얻어가지고 나온 인물이다. 일제 식민지 체제에 저항하여 5년간의 옥고를 치른 지식인은 당연히 조롱의 대상이 아니라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했다. 그러나 일제치하의 식민지 현실에서의 가치전도 현상은 숙부가 지지하는 사회주의 사상이, 식민지 기간동안 사회주의 이념이 민족해방운동의 중요한 사상적 무기로 작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기적이고, 어리석은 '나'에 의해 비판받고 있다. 즉 비난의 역전 기법을 통하여 표면상으로는 긍정적 인물로 내세운 '나'를 부정함으로써 칭찬, 비난의 전도라는 아이러니에 의해 풍자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즉 어리석은 '나'라는 인물을 통해 일제의 우민화(우중화) 정책의 실상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다..

④ 글의 표현 방법에 대한 판단 (어휘의 적절성, 표현방법의 적절성, 비어와 수사법의 효율성을 판단하는 것)해 보자.

'나'의 독백체를 통한 사건 전개와, 반어적 대화체 문장과 경어체를 사용한 다. 경어체 사용의 효과는 서술자와 독자의 거리가 가깝게 느껴지게 하면서 동시에 독자에게 비판적으로 읽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칭찬을 통한 비난의 역전 기법은 표면상 긍정적 인물로 내세운 '나'를 부정하게 하는 효과를 거둬들임으로써 「치숙」이 가지는 풍자적 가치를 부각시켜준다..

2) 유기성의 기준에 의한 비판

① 글의 내용 구조의 유기성과 구성의 체계성이 적절한가?

· 글의 구성 (5단구성)

발단 -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가 옥살이를 하고 폐병에 걸려서 앓아 누워 있는 오촌 고모부 아저씨 소개

전개 - 아주머니의 고생담과 '나'의 성장 과정

위기 - 철저히 일본인으로 동화되어 살아가겠다고 생각하는 '나'

절정 - '나'와 아저씨의 대립

결말 - 아저씨에 대한 '나'의 실망

단편 소설에 있어 5단 구성으로서 부정적 인간이 긍정적 인간을 조롱·비판하는데 있어 단계설정이 유기성을 가진다. 그러나 결말의 내용의 처리가 불완전함으로써 글의 반어적 의미를 드러내려고 한 작가의 의도가 나타난다.

② 인물의 성격과 인물간의 갈등에 의한 구성이 적절하게 설정되었는가?

· 「치숙」에서 등장하는 인물에 대해서 알아보자.

‘나’는 보통 학교 4학년을 마치고 일본인 밑에서 사환으로 있는 소년. 일제에 의한 식민지 상황을 전적으로 긍정하고, 기꺼이 일제에 동화되어 가겠다는 인물

‘아저씨’는 대학을 나온 뒤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가 감옥살이를 하고 있다. 그러나 병이 나서 폐인이 되다시피한 지식인과 일제치하에서 맹목적으로 아첨하는 인물간의 대립적 구성과 ‘나’가 바라보는 아저씨에 대한 갈등이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다.

③ 함축적 의미, 구조, 표현 기교,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표현되었는가?

※ 유기성의 기준이란, 부분과 전체의 관계에서 표현·태도·전체 등의 일관성, 통일성, 완결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말한다.

· ‘그런 걸보고 가만히 나를 생각하면, 만약 우리 증조 할아버지네 집안이 그렇게 치패를 안 해서 나도 전문 학교나 대학교를 졸업을 했으면 혹시 우리 아저씨 모양이 됐을지도 모를 테니 차라리 공부 많이 앉고서 이 길로 들어선 게 다행이다...’

차라리 공부를 많이 하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고 말하는 ‘나’의 자조적인 대사를 통해 그 당시 지식인들이 살았던 삶이 매우 험난한 것이었음을 역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 ‘아, 해서 좋을 양이면야 나라에선들 왜 금하여 무슨 원수가 졌다고 붙잡아다가 징역을 살리나요.’

이것은 소년 주인공이 자신의 사회주의관을 피력한 끝에 '나라'에 관하여 언급한 대목이다. '나라'라는 것이 일제를 가리킨다고 볼 때 그가 얼마나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인물인가 하는 것이 여기에서 자명하게 드러난다. 그는 그가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일본인 '다이쇼'에게 아첨하듯, 일제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맹종함으로써 개인으로서의 주체성 상실은 물론 정신적 무국적주의자로 전락하고 만다.

· “내 이상이며 계획은 이래서 이십만 원 짜리 큰 부자가 바로 내다뵈고 그리루 난 길이 환하게 트이고 해서 나는 시방 열심히 길을 가고 있는데 글썽 그 미쳐 살기든 놈들이 세상 망쳐 버릴 사회주의를 하려 드니 내가 소름이 끼칠 게 아니냐구요?”

사회주의는 빈부 격차를 없애려는 근본적인 사회 개혁을 추구하는 이념이기 때문에 부자가 되려는 야망에 가득 차 있는 '나'에게 있어 사회주의는 심히 위협적인 세력이 아닐 수 없다.

· “사실 아주머니만 아니면 내가 무슨 천주학이라고, 나쁜 병까지 앓는 그 양반을 찾아다니나요.”

천주교를 믿는 사람처럼 너그럽지 못하기 때문에 아주머니가 아니면 아저씨를 만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뜻의 말로, 아저씨에 대한 '나'의 감정이 대단히 좋지 않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 ‘흰개 꼬리 삼 년이더라.’

‘흰개 꼬리 삼 년 두어도 황모(黃毛) 못 된다.’는 속담에서 파생된 말로, 사회주의에 대한 아저씨의 태도는 확고한 것이므로 결코 쉽게 바뀌지 않을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 ‘기가 막혀서 … 하느님이 사람의 콧구멍 두 개로 마련하기 참 다행이야.’

만약 콧구멍이 하나였으면 콧구멍이 막혀 죽었을 것이라는 뜻으로, 예상치 않는 아저씨의 비판을 듣고 어처구니없어 하는 '나'의 마음을 익살스럽게 표현하고 있다.

3) 타당성의 기준에 의한 비판

① 「치숙」에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타당성의 기준에서 판단하면서 내용을 정리해보자.

칭찬 비난의 전도라는 아이러니에 의해 풍자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보여 준다. 결국 '나'라는 인물을 통해 비판하고자 한 것이 일제의 우민화(우중화) 정책임을 나타낸다. 즉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설정된 '나'를 통하여 사회적 모순과 노예적 삶의 비판하고자 한 것이 작가의 의도이다.

②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의심의 여지가 있는 것은 아닌가?

소설에 나타나는 작가의 서술중심 문장은 묘사위주의 소설 문장에서 보다 많은 결합을 안고 있지만 구어가 주는 생생한 실감이나 독특한 문체로 지리한 이야기 전개에 결합을 상당히 극복하고 있다. 또한 내용에서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아저씨'와 그의 비현실적인 사고방식을 비난하는 '나'의 갈등을 통해 시대 상황에 대한 유식층과 무식층의 반응을 표현하고 있다. 작가가 사회주의자인 아저씨를 적극적으로 긍정하지 않은 점은 동반자 작가의 세계관적 한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현실 상황에서 무능한 인물로 비춰지는 '아저씨'의 설정과 그에 대한 조카의 비판이라는 제시는 당시 지식인의 각성에 대한 적극적 개혁의지나 비판 정신보다는 소극적인 현실묘사에 치우쳤다는 점에서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일제의 우민화 정책에 대한 당시의 실상은 '나'의 어리석은 행동을 통해서 나타난다. 이는 일제의 우민화 정책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일깨우기에는 미흡하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는 현실적인 생활관을 터득하지 못하는 인텔리의 생리를 통해서 오히려 이데올로기마저 무능하게 만든다는 역설적인 논리가 이 작품에서는 성립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2) 외적 준거에 의한 독해적 독해

1) 신뢰성의 기준에 의한 비판

※ 신뢰성의 기준으로 볼 때, 신뢰성은 글의 아름다움을 위해 사실을 지나치게 과장하지 말아야 한다. 작가의 입장을 위해 과장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도록 한다.

① 글에서 다루는 내용이 사실에 부합되는가?

'치숙'은 표면상으로는 긍정적인 인물로 '나'를 내세웠지만, 사실은 현실에 야합하는 '나'를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나'의 논리를 명쾌하게 반박하지 못하는 아저씨의 한계도 무시할 수 없다. 또한 작가는 '나'에 대한 칭찬과 아저씨를 향한 비난을 절말에 가서 상호 역전시키는 방식으로 자신의 세계관을 피력하고자 한다. 그러나 사회주의자인 아저씨를 적극적으로 긍정하고 나서지는 않고 있는 점에서 한계점을 발견할 수 있다.

② 사회적 통념에 부합되는 내용으로 신뢰성을 주는가?

이 작품에서 작가는 오히려 극히 개인주의적 의식 구조를 가진 소년이 현실에 안주해서 살아가고 있는 모순된 삶의 방식을 역설적으로 비판하려는 의도를 표출하고 있다. 즉 작자는, 주인공 고모부를 신념의 인간으로, 그리고 화자인 조카는 무지하고 세속적인 인물로 나타내어 각각 다른 인생관을 보여주고 있다. 골게적(滑稽的)으로는 가치의 차이가 드러나도록 꾸며내고 있다. 이는 일제 강점하의 탄압 국면 속에서 당시 지식인들은 독립 운동이나 사회주의 운동을 지속하기는커녕 당장의 생계를 해결할 수 있는 생업을 찾지도 못하고 실의와 절망에 빠져 있던 사회적 현실을 보여주는 점에서 사회적 통념에 부합되는 내용으로서 신뢰성을 가지고 있다.

2) 효용성의 기준에 의한 비판

① 독자에게 즐거움을 제공할 수 있는가?

화자인 소년은 일본인 주인 밑에서 일하는 생활에 만족하는 인물이다. 일인 주인이 나를 각별히 귀여워하고 신용을 하니깐 한 십 년만 더 있으면 다루 장사를 시켜 줄 눈치라고 좋아한다. 일인에게 잘 보이고, 안일한 생활을

꿈꾸는 소년이다. 더구나 일인 주인이 내지인 여자를 중매(中媒)해 준다고 한 말을 기대하고 있다. 조선 여자는 거저 주어도 싫다고 말한다. 이러한 소년의 눈에 비친 아저씨는 “미쳐 살기(殺氣)가 든 놈들이 세상 망쳐 버릴 사회주의를 하려 드는” 인물이다. 소년은 세상이 망해서 뒤집히면 “그래 나는 어찌란 말인가? 아무 것도 다 허사가 될테니 그런 억울한 데가 있드람?”라고 말함으로써 소년은 자신이 신뢰할 수 없는 인물임을 독자에게 탄로나게 된다. 독자에게 이러한 소년의 어리석은 행동을 통해 웃음을 유발하게 되고, 독자에게 즐거움을 제공하게 된다. 또한 민족의식 없이 식민지하의 자신의 안일과 행복만을 추구하는 철저히 개인주의적 인물을 통해 독자는 깨달음을 얻게 된다.

② 삶의 지혜(교훈)를 제공해 주는 내용인가?

이 작품은 일제 강점기에서의 민족적 비극이 당연한 것이라는 표현에서 현실과 타협해 사는 당대 일상인의 삶의 실재를 엿볼 수 있다. 동시에 그러면서도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일제에 의한 지배구조에 맞싸우는 노력이 참으로 값진 것이라는 진실을 알려주는 역논리기법이 발휘되어 있다. 따라서 ‘치숙’에는 ‘나’와 같은 현실순응적 인물이 활개를 치고 살아가는 현실을 전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한편, ‘아저씨’와 같은 인물의 투쟁이 있다는 짐을 들어 밝은 미래를 기대하고 있는 작가의 시각이 드러나 있다.

③ 이 글이 독자에게 무엇을 생각하게 하는지 효용성의 기준에서 가치를 판단해 보자.

이 작품은 사회주의 이상을 철저히 추구하지 못하는 ‘나’와 한 소년을 철저히 우민화(愚民化)시키는 일제를 동시에 부정하여 결국 모든 것을 부정하는 수준으로 수렴되고 있다. 그러한 풍자의 이야기 속에서 결국 최종적인 판단은 독자가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즉 독자는 「치숙」을 읽음으로써 지식인이 정상적으로 살 수 없는 사회적 모순과 노예적 삶의 현실을 비판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게 된다. 그리고 삶의 의미와 행동양식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된다.

④ 이 글이 씌어지던 당시의 상황과 오늘날의 상황을 비교하여 효용성의 기준을 통해 작품의 의미를 내면화하여 이해할 수 있다.

이 글은 일본 군국주의가 우리 나라를 식민지로 점령하여 경제적 수탈과 정치적·문화적 탄압을 서슴지 않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리하여 사상의 자유로운 토론을 금지하는 일제의 강압 통치를 조롱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다. 또한 이 작품의 배경이 되는 일제 강점하의 탄압 국면 속에서 당시 지식인들은 독립 운동이나 사회주의 운동을 지속하기는커녕 당장의 생계를 해결할 수 있는 생업을 찾지도 못하고 실의와 절망에 빠져 있었다. '인텔리의 몰락과 실업의 홍수'는 지식인의 자조(自嘲)와 절망을 가져 왔다. 그것은 당시 지식인을 그런 비참한 지경으로 몰고 간 시대 및 사회에 대한 신랄한 비판으로 이 작품에서 표출되고 있다. 이것은 오늘날의 상황과 비교해 볼 때 정치적·문화적 탄압의 문제에 대해 작품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며 「치숙」을 통해 현실인식에 대한 깨달음과 감동을 얻을 수 있다.

⑤ 자신이 비판적으로 읽고 이해한 내용과, 예전에 반성 없이 읽은 일이 있다면 그 내용을 비교해 보고,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가?

작가는 주인공 고모부를 신년의 인간으로, 그리고 화자인 조카는 무지하고 세속적인 인물로 나타내어 각각 다른 인생관을 보여 줌으로써 골계적(滑稽的)으로 가치의 차이가 드러나도록 꾸며내고 있다. 즉 신빙성 없는 서술자를 통해 드러나는 가치 전도의 현상은 당대의 왜곡된 현실을 그리고 있다. 즉 일본 군국주의가 우리 나라를 식민지로 강제 점령하여 경제적 수탈과 정치적, 문화적 탄압을 서슴지 않던 시대를 작품 속에 구조화하여, 이해할 수 있게 됨으로써 치숙에 등장하는 인물을 비판적으로 볼 수 있게 해준다. 따라서 시대 상황과 관련하여 작가의 의도와 풍자된 작품 읽기를 통하여 당시 일제의 우민화(우중화) 정책을 살펴보게 된다. 동시에 지식인이 정상적으로 살 수 없는 사회적 모순과 노예적 삶의 현실을 반성적 시각에서 바라보게 된다. 따라서 비판적 시각으로 외적 준거에 의한 사회적 상황과의 관련성은 작품의 이해에 적극적·능동적 태도를 가능하게 해준다.

3) 공정성의 기준에 의한 비판

① 다른 사람도 수용 가능한 내용을 지니고 있는가?

역사적으로 식민지 시대 한국의 전통문화는 훼손되었다. 그리하여 일제는 한국인에게 열등감을 조장하며, 일본에 대한 '노예처럼' 생각하거나 기회주의적인 사고 방식으로 자민족에 대한 심한 매도의식을 심어주었다. 따라서 작가가 드러내는 1인칭 화자인 '나'와 같은 인물은 기회주의자의 전형으로 비판할 수 있다. 즉 개인의 삶은 사회구조 의해 영위되는 것이며 사회는 역사의 흐름에 의해 형성된다고 인식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사회 의식이나 현실인식이 결여된 과렴치한 기회주의자를 아이러니에 의해 조롱하고 있다. 오늘날과 같은 현실에서도 그러한 인물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시대와 세대를 넘어서 오늘날까지 수용가능한 내용을 지니고 있다.

② 필자가 궁극적으로 비판하고자 하는 삶의 형태는 무엇이며, 글의 배경이나 분위기, 상황 등에서도 공감할 수 있는 것인가?

「치숙」의 배경은 일제하의 1920-1930년대 서울, 이 시기는 산업화 사회로 변모해가는 과정에서 파생된 물질적인 도시문화가 팽배하기 시작하던 때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나'가 치숙을 비판하지만 궁극적으로 칭찬하고 있는 '나'를 비난하는 역논리의 기법을 사용하는 풍자적 수법의 작품을 사용하고 있다. 즉, 화자의 비난을 통해 독자가 그 비난의 대상이 되는 인물을 재평가하게끔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칭찬-비난의 역전 기법'으로 사상의 자유로운 토론을 금지하는 일제의 강압 통치를 조롱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다. 따라서 서술자의 장황한 궤변 속에 드러나는 작중 현실은 있어야 할 것과 있는 것 사이의 심각한 괴리를 나타낼 뿐이다. 그리고 작품의 진정한 의미는 웃지 못할 상황 속에 감추어진 현실적 모순이며, 작가의 날카로운 비판의식이다. 이 때 독자는 서술자에 의해 진행된 설명과 작품의 주제 사이의 차이를 감지하게 함으로써 작품에 대해 공감할 수 있게 된다.

③ 글의 내용을 자신이 책에서 읽었거나, 직접 경험한 내용들과 비교해

보면서, 자신과 다른 입장에 처한 사람들의 생각도 추측해보고, 객관자의 입장에서 필자의 견해가 보편성을 가질 수 있는지 비판해 본다

표면상 긍정적 인물로 내세운 '나'를 부정함으로써 칭찬 비난의 전도라는 아이러니에 의해 풍자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일제시대의 식민지하의 지식인의 한계와 문제점을 우회적으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치숙」에서 '나'로 대변되는 조카의 친일적 행각은 이 작품뿐만 아니라 다른 작품에도 나타나는데, 시대상황과 관련하여 독자는 객관자의 입장에서 필자의 견해의 보편성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④ 다른 여러 상황에 두루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풍부한 의미를 지녔는가?

「치숙」은 식민지 시대적 현실에서 무지하고 사회의식이 결여된 인물들이 현실에 아부하거나 안일하게 살아가려는 모습을 반어적으로 희화화한다. 그래서 속물 사회에 대한 거부와 대결로 식민지 현실을 타개하는 신념을 보여 준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풍자소설의 특성은 개인과 사회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고 있다. 역사와 개인의 인생, 그리고 양자간의 관계를 사회라는 테두리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의미를 내포한다. 즉 독자에게 외적 환경에 대한 간접 경험을 통한 식민지 현실에 대한 이해라는 가치를 지니는 점에서 풍부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교수 학습 모형의 적용

여기에서는 교수 학습 모형의 단계별로 학습목표와 교수-학습계획, 지도상의 유의점을 제안하여 실제 교수 학습 과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1단계 : 도입제기 단계

● 학습 목표

- 비판의 의미와 개념을 알고, 적절한 비판 방법을 생각해본다.
- 비판의 기준(내적준거, 외적 준거)을 안다.

- 풍자소설의 적절한 비판전략에 대해 생각해본다.

<표6> 교수 학습 계획(총 1시간)

차 시		교수 - 학습 내용	학습형태	학습 준비물
선수 학습		○ 풍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 풍자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글 생각해보기	과제	
1/1	도입 제시	○ '비판'의 개념 알기 ○ 비판적 이해의 필요성 알기 ○ 비판하며 이해해야 할 경우 생각해보기 ○ 적절한 비판 방법 생각해 보기	강의학습 (설명하기)	○ 컴퓨터 ○ PPT ○ 사전 ○ 스크린
정리 학습		○ 글의 즐거리를 파악하면서, 글을 읽어오기	과제	

※ 지도상의 유의점

- 학습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찾아오도록 사전에 지도한다.
- 4-6명 단위로 조를 편성하고, 조별 활동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 개인적으로 또는 조별로 충분히 탐구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학습활동 시간 계획을 수립한다.
- 학습 활동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안내해 준다.(PPT 활용)
- 학습 활동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소극적이거나 방관적인 참여자가 생기지 않도록 지도한다.

2단계 : 구조화된 연습 단계

● 학습 목표

- 비판적 이해의 개념을 분명히 안다.
- 비판적 이해의 읽기 중에서 내적 준거와 외적 준거에 의한 독해를 이해한다.
- 풍자 소설의 특성을 이해하고 텍스트의 의도, 작가와 독자의 개념을 이해한다.
- 풍자 소설의 개념과 이해를 통해 비판하고자 하는 목적을 이해한다.
- 교사의 직접 시범을 보고 비판적 읽기 전략을 적용하여 글을 이해한다.

<표7> 교수 학습 계획(총 1시간)

차시		교수 - 학습 내용	학습형태	학습 준비물
선수 학습		○ 비판하기 위한 기준 생각해 오기 (내적준거, 외적 준거) ○ 풍자 소설의 특성 알아오기	과제	
도입	구조	○ 글을 읽고 떠오르는 느낌을 통해 동기 유발하기 ○ 풍자소설의 개념과 이해를 통해 비판하고자 하는 목적을 이해하기	강의 수업 (시범 보이기)	○ 컴퓨터 ○ PPT ○ 사진 ○ 스크린 ○ 학습 자료 유인물
전개	화된 연습	○ 비판적 읽기 전략을 이해하며, 글의 줄거리 파악하기 ○ 풍자 소설의 인물 형상화 특징을 비판의 준거와 관련하여 이해하기 ○ 서술자와 서술 방식의 특성을 풍자 소설이라는 점에 유의하여 이해하기		
정리 학습		○ 작품 이해(작가조사, 내용, 문체 등) 관련 내용을 나누어서 조사해 오기	과제	○ 유인물

※ 지도상의 유의점

- 글을 비판하며, 읽을 때의 기준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게 한다.
- 지도하는 개념과 원리들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많은 예문의 분석을 보여줌으로써 학생들의 이해를 돕는다.
- 교사가 시범을 보이는 글은 가능한 모든 전략을 활용할 수 있는 글을 선택한다.
- 설명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유인물로 제작하여 나누어준다.
- 강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프로젝터를 이용하여 수업을 진행한다.

3단계 : 지도된 연습 단계

● 학습 목표

- 비판적 읽기 전략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적용한다,
- 제시된 전략(내적 증거에 의한 독해)을 통하여 글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 비판적으로 이해한 글의 내용에 적절하게 반응하고, 이를 바탕으로 읽은 내용을 자신의 독서 체험으로 재구성한다.

<표8> 교수 학습 계획(총 1시간)

차 시		교수 - 학습 내용	학습형태	학습준비물
선수 학습		○ 학습 자료(유인물) 예습해 오기	과제	
도입	지도 된 연습	○ 제목과 관련하여 동기 유발하기 ○ 교사의 시범을 모방하여 비판적 읽기 전략 연습하기 (탐구 활동 보고서 이용)	탐구 학습 (안내된 활동하기)	○ 학습자료 유인물 ○ 탐구활동 보고서
전개		○ 모둠별로 작품해설 및 이해활동에 대해 조사한 것을 탐구활동을 통해 살펴보기 ○ 탐구 활동의 결과를 발표하고 풍자 소설의 의미와 효과에 대해 이해하기 ○ 탐구 활동의 결과를 바탕으로 글 비판적으로 이해하기		
정리 학습		○ 모둠별로 내적·외적 증거의 작품 내용에 대한 자료 정리해오기	과제	○ 유인물

※ 지도상의 유의점

- 교사의 시범을 모방하여 연습할 수 있도록 전 단계에서 선택한 글과 비슷한 유형의 글을 선택한다.
- 탐구 활동 중 발생하는 학생들의 오류를 전략 활용의 과정적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교정한다.
- 교사는 안내자, 조력자로서 학생들이 충분히 작품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학생 주도 활동을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4단계 : 독립적 연습 단계

● 학습 목표

- 비판적 읽기 전략을 내면화하고 스스로 능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비판적 읽기전략(외적 증거에 의한 독해)을 활용하여 글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 비판적으로 이해한 글의 내용에 적절하게 반응하고, 이를 바탕으로 읽은 내용을 자신의 독서 체험으로 재구성한다.

<표9> 교수 학습 계획(총 1시간)

차시	교수 - 학습 내용	학습형태	학습준비물
선수 학습	○ 학습 자료(유인물) 예습해 오기	과제	
도입	○ 조별 토의 보고서의 문제 토의 하기	토의학습 (조별 활동)	○ 학습자료 유인물 ○ 조별 활동 보고서
독립 된 연습 전개	○ 조별 토의 보고서의 문제 토의 하기 ○ 토의 활동의 결과를 바탕으로 글 비판적으로 이해하기 ○ 비판적 독서의 결과를 자신의 독서 체험으로 재구성하기 (비평문 쓰기)		
정리 학습	○ 비판의 읽기 전략을 적용하여 다른 풍자 소설에도 적용해 보기	과제	○ 유인물

※ 지도상의 유의점

- 학습 자료로 주어진 글을 읽고 글에 적절한 전략을 활용하여 글을 분석해 올 수 있도록 한다.
- 조별 토의 활동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한다.
- 조별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습 자료를 제작하여 사전에 배부해 준다.
- 조별 활동이 끝난 뒤 발표를 통해 다시 한번 비판적 읽기 전략을 내면화할 수 있도록 한다.
- 글을 읽는다는 것이 글의 내용 수용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글쓰기의 창조적인 작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비평문 쓰기 과정을 실시한다
- 제출한 비평문을 정리하고 첨삭하여 별도의 자료를 제작하여 배부해 준다.

< 표10 >

「태평천하」 교수 학습 과정안 (1차시)

단원명		비판적 이해				
대단원 학습목표		1. 글의 내용을 내적·외적 증거에 의해 비판할 수 있다. 2. 작자의 삶의 태도를 요약하여 말할 수 있다. 3. 비판적 읽기를 통하여 풍자성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소단원명		(1) 태평천하		차시	1/4	
학습목표		① 비판의 의미와 개념을 알고, 비판의 기준(내적증거, 외적 증거)을 안다. ③ 풍자소설의 특징에 대해 알고, 글의 구조를 파악한다.				
학습과제		비판의 개념과 기준, 풍자소설 상황에 해당하는 비판전략이해				
학습자료		교 사		학 생		
		교과서, 지도안, 참고 자료 프린트		교과서, 참고 자료 및 과제 프린트		
과정	학습내용	교수 - 학습 활동		시간	학습 형태	지도상 유의점
		교 사	학 생			
도 입	출석 점검	· 출석 점검	· 대답한다.	5'	문답 학습	학생들의 주의를 집중시킨다.
	내용 확인 동기유발	· 학습목표를 확인한다. · '비판적 이해'란 어떠한 것인지 이야기해 보자. · 일상 생활에서 비판하며 글을 읽었던 경우를 생각해보게 한다.	· 학습 목표를 인식한다. 3) 비판적 이해에 대해 아는 한도 내에서 대답할 수 있다. · 일상생활에서 그를 비판하면서 읽었던 경우를 생각한다.			
전 개	비판적 읽기 특성을 통한 내용 이해	· '비판'이란? · '비판'이란 말에서 받는 느낌은 어떠한가? · 비판적 이해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한다. · 비판적 이해가 이루어지는 글을 탐구하게 한다. · 비판의 내적 증거·외적 증거에 대해 질문한다. · 비판의 증거에 대해 설명해 주며, 비판하며 읽기의 특성을 알게 한다. (※ 표4 제시) · 비판적 이해의 특성과 증거에 대해서 이해한다. *전시 과제 확인을 통해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찰한다.	· 글의 내용과 표현에 대해 옳고 그름을 평가하고 판정하는 적극적 이해의 과정이다. · 자유롭게 대답한다 · 비판적 이해가 이뤄지는 글을 탐구하며 찾아볼 수 있다. · 질문을 통해 교사의 설명과 함께 비판의 증거에 대해 물음을 제기한다. · 비판의 증거에 대해 설명해 주며, 비판하며 읽기의 특성을 듣고 정리해본다. * 전시 과제를 통해 조사한 내용을 탐구할 수 있다.	40'	설명 학습	*학생들은 교사의 설명을 듣고 정리한다

전 개	비판적 읽기 특성을 통한 내용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한 내용을 발표하게 한다. - 풍자 소설의 개념 - 풍자소설의 특징 - 작가 조사, 창작시기 · 발표가 끝난 후 내용을 요약 정리하며 보충해서 설명한다. · 『태평천하』가 시어진 시대 상황에 대해 질문한다. · 『태평천하』가 창작된 시대의 특징¹⁾(1)-1-① (p.4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한 내용을 발표하며, 발표 후 과제를 제출한다. - 풍자 소설의 개념 - 풍자소설의 특징 - 작가 조사 · 설명한 내용을 보충해서 정리하고 작품에 대해 이해한다. · 『태평천하』가 지어진 시대 상황에 대해 대답한다. · 『태평천하』가 창작된 시대의 특징을 정리해본다. 	5'	*교사의 적절한 안내와 학생이 스스로 활동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정 리	본시 요 점 정리 차시에고 및 과제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시학습을 위한 과제제시 - 『태평천하』의 내용을 주의 집중하며 읽어 오기 - 작품 줄거리 파악해오기 · 차시에고 및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 인지 - 『태평천하』를 정독하여 읽어 온다. - 대강의 줄거리를 파악하여 본다. · 차시에 학습할 내용 확인 및 차시 과제 배모하기 		

< 표11 >

「태평천하」 교수 학습 과정안 (2차시)

소단원명	(1) 태평천하		차시	2/4		
학습목표	① 글을 내적·외적 준거에 의해 비판한다. ② 글의 등장인물의 성격과 서술방식을 파악·이해한다.					
학습과제	작품에 대한 내적·외적 준거를 이용한 비판					
학습자료	교 사		학 생			
	교과서, 지도안, 참고 자료 프린트		교과서, 참고 자료 및 과제 프린트			
과정	학습내용	교수 - 학습 활동		시간	학습 형태	지도상 유의점
		교 사	학 생			
도입	출석 점검	· 출석 점검	· 대답한다.	5'	문답 학습	
	전시학습	· 지난시간 학습한 비판적 이해의 개념과 준거에 대해 질문한다.	· 비판적 이해의 개념과 준거에 대해 대답할 수 있다.			
전개	내용확인	· 학습 목표를 제시한다.	· 학습목표를 인지하고 전체 낭독해본다.	40'	탐구 학습	*교사는 토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다. 다만 발표 내용을 정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동기유발	· 제목에서 대해 생각해 보고 느낌을 이야기 해본다.	· 제목에 대한 느낌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다.			
정리	*구성 파악을 통한 내용 이해	· 내적 준거에 의한 독해	· 「태평천하」가 장편소설임을 알고, 각 장의 내용의 흐름을 이해하고 교과서 수록된 장을 중심으로 줄거리를 안다.	5'		
		· 장편소설임에 설명하고 교과서에 수록된 장을 중심으로 줄거리 파악하게 한다.	· 「태평천하」가 장편소설임을 알고, 각 장의 내용의 흐름을 이해하고 교과서 수록된 장을 중심으로 줄거리를 안다.			
정리	*본시 요점 정리 차시예고 및 과제 제시	· 줄거리를 중심으로 글의 구성을 적어보게 한다. ☞ (1)-2)-⑤를 제시(p.52)	· 5단 구성을 통한 소설의 구성 방식을 이해한다.			
		· 인물의 행동에 대해 떠오르는 생각을 나열하고 인물개요표를 그려보게 한다.	· 인물의 행동에 대한 생각을 인물개요표 그려볼 수 있다.			
정리	*본시 요점 정리 차시예고 및 과제 제시	· 인물개요표를 통해 비판적 질문을 하면서 풍자소설의 인물형상화 특징을 안다. ☞ (1)-2)-③를 제시(p.49)	· 풍자 소설에 제시된 인물 형상화의 특징을 파악하고 내면화할 수 있다.			
		· 글의 서술자와 서술 방식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 (1)-2)-⑤를 제시(p.52)	· 글의 서술자와 서술 방식의 특성을 풍자 소설특성에서 이해할 수 있다.			
정리	*본시 요점 정리 차시예고 및 과제 제시	· 「태평천하」의 등장 인물을 다른 상황에 빗대어 생각하게 한다.(인물의 성격파악)	· 등장 인물을 다른 상황에 빗대어 생각해보고 인물의 성격에 대해 안다.			
		1. 요점 정리 및 질문에 답하기	1. 확인 및 의문 질문			
정리	*본시 요점 정리 차시예고 및 과제 제시	2. 차시학습을 위한 과제제시 - 「태평천하」 관련 내용 조사	2. 차시에 학습할 내용 확인 및 차시 과제 메모하기	5'		

< 표 12 >

「태평천하」 교수 학습 과정안 (3차시)

소단원명		(1) 태평천하		차시	3/4
학습목표		① 글의 등장인물의 성격과 서술방식을 파악·이해한다. ② 글을 내적·외적 준거에 의해 비판을 통해 작품내용을 이해한다.			
학습과제		작품에 대한 내적·외적 준거를 이용한 비판			
학습자료		교과서, 지도안, 참고 자료 프린트		교과서, 참고 자료 및 과제 프린트	
과정	학습내용	교수 - 학습 활동		시간	학습 형태
		교사	학생		
도입	출석 점검	· 출석 점검	· 대답한다.	5'	문답 학습
	전시 학습	· 지난 시간에 학습한 비판적 이해의 개념과 준거에 대해 질문한다. · 학습 목표를 제시한다.	· 비판적 이해의 개념과 준거에 대해 대답한다. · 학습목표를 인지하고 전체 낭독해본다.		
	내용확인 동기유발	· 「태평천하」의 문체와 관련하여 판소리를 본 경험에 대해 질문한다.	· 판소리를 본 경험을 생각해 보고, 「태평천하」와 판소리 문체의 유사성에 대해 생각한다.		
전개	*구성 파악을 통한 내용 이해	· 글의 서술 방식의 특성에 유의하며 「태평천하」의 제목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하고, 각자 의견을 적어 보게 한다. (1)-(1)-①(p.47)	· 글의 서술 방식의 특성에 유의하며 「태평천하」의 제목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자유롭게 각자의 의견을 적어 볼 수 있다.	40'	소집 탐구 학습
		· 읽어온 내용을 바탕으로 내적·외적 준거를 통하여 모둠별로 글의 이면적 의미를 파악해 보자. (본문 참고)	· 읽어온 내용을 바탕으로 내적·외적 준거를 통해 모둠별로 글의 이면적 의미에 대해 논의한다. (본문 참고)		
		· 내적 준거·외적 준거의 평가 기준에서 인물의 행동, 갈등 양상, 문체, 서술 특성, 구조 등을 모둠별로 조사해보게 한다. (전시 학습과 관련)	· 토의를 통해 의미와 내용을 파악하고, 모둠별로 조사할 주제를 정한다. (전시 학습과 관련)		*교사는 토의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다. 다만 발표 내용을 공통적 요소들을 모아 정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모둠별로 조사한 내용을 발표하게 한다.	· 토의한 내용을 모둠별 대표가 발표한다.		
		· 발표 내용을 참고하면서 작품을 읽은 느낌을 정리해보게 한다.	· 내적준거·외적 준거의 평가 기준에서 논의될 내용을 모둠별로 이해한다.		
		· 발표 내용을 정리하여 판서한다.	· 자유롭게 발표해보게 한다.		
정리	본시정리 차시예고 과제제시	1.요점정리 및 질문에 답하기 2.차시학습을 위한 과제제시 - 모둠별 수행과제 확인	1. 확인 및 의문 질문 2. 차시에 학습할 내용 확인 및 차시 과제 메모하기	5'	

< 표13 >

『태평천하』 교수 학습 과정안 (4차시)

소단원명		(1) 태평천하		차시	4/4	
학습목표		① 「태평천하」의 비판적 읽기를 통해 내용을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내면화한다. ② 작품을 이해한 후에 다른 작품에도 활용하여 이해할 수 있다.				
학습과제		비판의 개념과 기준, 풍자소설 상황에 해당하는 비판전략이해				
학습자료		교 사		학 생		
		교과서, 지도안, 참고 자료 프린트		교과서, 참고 자료 및 과제 프린트		
과 정	학습내용	교 수 - 학 습 활 동		시 간	학습 형태	지도상 유의점
		교 사	학 생			
도 입	출석점검	· 출석 점검	· 대답 한다.	5'	문답 학습	학생들 주의를 집중시킨다.
	전시학습 내용확인 동기유발	· 과제 학습장 확인 · 토의학습효과를 통한 작품 이해를 생각해 보게 한다.	· 과제를 제출 · 토의 학습효과를 통하여 작품을 이해한다.			
전 개	* 비판적 읽기 특성을 통한 내용 이해	· 모둠 별로 비판 과제 내용을 확인 한다. -제1과제(1, 5모둠) 표현 및 어휘의 측면을 적절성의 기준으로 평가하기. (1)-(1) p.47 -제2과제(2, 6모둠) 작자의 현실 풍자관을 효용성의 기준으로 평가하기. (2)-(2)p.55 -제3과제(3, 7모둠) 작가의 인간관을 신뢰성과 공정성의 기준의 평가하기. (2)-(1),3)p.57 제4과제(4, 8모둠)현대적 관점에서 작품을 효용성의 기준으로 평가하기. (2)-(2)-(4)p.56 · 논의된 내용을 모듬별로 발표하게 하고, 발표내용에 대해 요약하고, 부연한다. * 같은 과제를 토의한 두 모듬이 다른 결과를 발표할 경우 결과 내용을 합치거나, 수정·보완도록 권고한다. · 경험을 심화시킬수 있도록 짧은 비평문을 써보도록 한다.	· 비판과제에 따라 모듬별로 토의한다.(제시된 자료를 참고해 논의, 발표한다.) - 제1과제(1, 5모듬) 독백적 관소리 사설조로 풍자성과 해학성을 고조시킨다. -제2과제(2, 6모듬) 현재의 사회 현실 비판에 유용한 단서를 제공한다. - 제3과제(3, 7모듬) 등장 인물들이 회화적으로 제시되어, 풍자효과를 준다. -제4과제(4, 8모듬) 현실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글로 현실비판 문체에 시사 하는 바가 큼을 안다. * 교사의 조언을 참고하여, 재조정 및 다시 생각할 기회를 마련한다. · 경험을 심화시킬 수 있는 인상있었던 부분을 정리하면서 비평문을 쓰면서 내면화할 수 있다.	40'	소집 단 토 의 학습	학생 주도적 활동을 통한 작품 이해를 중점으로 한다.
		정 리	본시정리 차시에고 과제제시			

<표14>

「치숙」 교수 학습 과정안(1차시)

소단원명	(2) 치숙		차시	1/3		
학습목표	① 글을 내적·외적 증거에 의해 비판한다. ② 글의 등장인물의 성격과 서술방식을 파악·이해한다.					
학습과제	작품에 대한 내적·외적 증거를 이용한 비판					
학습자료	교 사		학 생			
	교과서, 지도안, 참고 자료 프린트		교과서, 참고 자료 및 과제 프린트			
과 정	학습내용	교 수 - 학 습 활 동		시 간	학 습 형태	지도상 유의점
		교 사	학 생			
도 7일	출석점검	· 출석 점검	· 대답한다.	5'	문 답 학습	
	전시학습	· 지난 시간에 학습한 비판적 이해의 개념과 증거에 대해 질문한다.	· 비판적 이해의 개념과 증거에 대해 대답한다.			
	내용확인 동기유발	· 학습 목표를 제시한다. · 제목에 대해 생각과 느낌을 이야기해 보게 하고, 뜻을 알아본다. ≪(1)-1-① p.59	· 학습목표를 인지하고 전체 낭독해본다. · 제목에 대한 느낌을 자유롭게 이야기해 보고, 뜻을 알 수 있다.			
전 개	*글의 구성 파악을 통한 내용 이해	· 「치숙」의 줄거리를 파악하게 한다. ≪(1)-2-① p.60	· 「치숙」의 줄거리를 안다.	40'	탐 구 학습	*교사는 토의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다. 다만 발표 내용을 정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줄거리를 중심으로 글의 구성을 적어보게 한다. · 인물의 행동에 대해 떠오르는 생각을 나열하고 '나'와 '치숙'의 인물지도를 그려보게 한다. ≪(1)-2-②,③ p.61	· 5단 구성을 통한 소설의 구성 방식을 이해한다. · '나'와 '치숙'의 인물의 행동에 대해 인물지도를 통해 비교할 수 있다.			
		· 인물이 지도를 통해 풍자소설의 인물형상화 특징을 안다. · 글의 서술자와 서술 방식의 특성을 이해하게 한다. ≪(1)-1-② p.59	· 풍자 소설에 제시된 인물 형상화의 특징을 파악하고 내면화할 수 있다. · 글의 서술자와 서술 방식의 특성을 알 수 있다. · 작가가 제시하고 있는 풍자 수법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 작가가 제시하고 있는 풍자 수법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한다. · 「치숙」이 창작된 시대의 특징에 대해 생각해 보고, 「태평천하」와 비교해 보게 한다. · 「치숙」의 등장 인물을 나눈 상황에 빗대어 생각해 보게 한다.(인물의 성격 파악 확인)	· 「치숙」이 창작된 시대의 특징에 대해 생각해 보고, 「태평천하」와 비교해 볼 수 있다. · 「치숙」의 등장 인물을 성격에 대해 알 수 있다.			
정리	본시정리 차시예고 과제제시	1.요점 정리 및 질문 답하기 2.차시학습을 위한 과제제시 -모둠별로 작품 조사해오기	1.확인 및 의문 질문 2.차시에 학습할 내용 확인 및 차시 과제 메모하기	5'		

< 표15 >

「치숙」 교수 학습 과정안(2차시)

소단원명		(1) 치숙		차시	2/3
학습목표		① 글의 등장인물의 성격과 서술방식을 파악·이해한다. ② 글을 내적·외적 증거에 의해 비판한다.			
학습과제		작품에 대한 내적·외적 증거를 이용한 비판			
학습자료		교 사		학 생	
		교과서, 지도안, 참고 자료 프린트		교과서, 참고 자료 및 과제 프린트	
과정	학습내용	교수 - 학습 활동		시 간	지도상 유의점
		교 사	학 생		
도 입	출석점검	· 출석 점검	· 대답한다.	5'	문 답 학습
	전시 학습	· 지난 시간에 학습한 비판적 이해의 개념과 증거에 대해 질문한다. · 학습 목표를 제시한다.	· 비판적 이해의 개념과 증거에 대해 대답할 수 있다. · 학습목표를 인지하고 전체 낭독해본다.		
전 개	내용확인	· 당시 현실에서 나의 경우라면 「치숙」에서 '나'와 '치숙'과 중 어떤 인물형을 택할지 질문해 본다.	· 식민치하의 「치숙」에 등장하는 인물 유형과 비교하여, 자신의 생각을 정립할 수 있다.	40'	교사는 토의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다. 다만 발표 내용을 정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동기유발	· 글의 서술 방식의 특성에 유의하며 「치숙」의 제목이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고 각자의 의견을 적어 보게 한다. ·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모둠별로 글의 이면적 의미를 파악해 보자.	· 글의 서술 방식의 특성에 유의하며 제목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고 각자의 의견을 적어 볼 수 있다. · 토의를 통해 의미와 내용을 파악하고, 주제를 정한다. · 토의한 내용을 모둠별 대표가 발표한다.		
정 리	* 구성 파악을 통한 내용 이해	· 내·외적 증거에서 인물의 행동, 갈등 양상, 문체, 서술 특성, 구조 등을 모둠별로 조사해보게 한다. · 모둠별로 조사한 내용을 발표하게 한다. · 발표 내용을 정리하여 판서한다. · 작가가 궁극적으로 비판하고자 하는 인물이 누구인가 적어보게 하며, 주제를 이해하게 한다.	· 내·외적 증거에서 논의된 인물의 행동, 갈등 양상, 문체, 서술특성, 구조 등을 모둠별로 이해한다. · 자유롭게 발표해보게 한다. · 작가가 궁극적으로 비판하고자 하는 인물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적어보며, 주제와 관련해 이해할 수 있다.	5'	
	본시정리 차시예고 과제제시	1.요점정리 및 질문에 답하기 2.차시학습을 위한 과제제시 -모둠별로 수행할 과제 확인	1. 확인 및 의문 질문 2. 차시에 학습할 내용 확인 및 차시 과제 메모하기		

< 표16 >

「치숙」 교수 학습 과정안(3차시)

소단원명	(2) 치숙		차시	3/3		
학습목표	① 「태평천하」의 비판적 읽기를 통해 내용을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내면화한다. ② 작품을 이해한 후에 다른 작품에도 활용하여 이해할 수 있다.					
학습과제	비판의 개념과 기준, 풍자소설 상황에 해당하는 비판전략이해					
학습자료	교 사		학 생			
	교과서, 지도안, 참고 자료 프린트		교과서, 참고 자료 및 과제 프린트			
과정	학습내용	교수 - 학습 활동		시 간	학습 형태	지도상 유의점
		교 사	학 생			
도입	출석점검 전시학습 내용 확인 동기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석 점검 과제 학습장 확인 토의학습효과를 통한 작품 이해를 생각해 보게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답 한다. 과제를 제출 토의학습효과를 통한 작품 이해를 생각해 보게 한다. 	5'	문답 학습	
전개	<p>*비판적 읽기 특성을 통한 내용 이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둠 별로 비판 과제를 제시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과제(1, 5모둠) 표현 및 어휘의 측면을 적절성의 기준으로 평가하기. ④(1)-1) p.59 - 제2과제(2, 6모둠) 작자의 현실 풍자관을 효용성의 기준으로 평가하기. ④(2)-2) p.64 - 제3과제(3, 7모둠) 작가의 인간관 신뢰성과 긍정성의 기준으로 평가하기. ④(2)-1),3)p.67 - 제4과제(4, 8모둠) 현재의 관점에서 효용성을 기준으로 평가하기. ④(2)-2)-④, ⑤p.66 * 논의된 내용을 모둠별로 발표하게 하고, 발표 내용에 대해 요약하고, 부연한다. * 발표 내용이 예견된 내용과 다를 경우 다른 관점에서 준비 내용을 제시한다. * 같은 과제의 모듬이 다른 결과를 발표할 경우 권고사항임을 전제로 내용을 수정, 보완하게 한다. * 경험을 심화시킬수 있도록 인상 깊었던 부분을 정리하게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판 과제에 따라 모듬별로 제시된 자료를 참고하여 논의하고, 대표가 발표한다. - 제1과제(1, 5모둠) 서술자인 '나'가 '신뢰성없는', 독백적 문체로 풍자성격과 해학성을 고조시키며, 능동적으로 작품을 읽게 한다. - 제2과제(2, 6모듬) 작자의 풍자관은 현재의 현실 비판에 유용한 단서제공 - 제3과제(3, 7모듬) '신뢰성없는' 서술자가, 객관적인 태도를 드러내지 않아 풍자성을 극대화한다. - 제4과제(4, 8모듬) 현실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글로, 현재의 관점에서 현실 비판 문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안다. * 경험을 심화시킬 수 있는 인상 깊었던 부분을 정리하면서 내면화한다. 	40'	소집단 토의 학습	<p>* 학생 주도적 활동을 통한 작품 이해를 중점으로 해야 한다.</p>
정리	본시 정리 차시에고 과제제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요점 정리 및 질문에 답하기 2. 차시학습을 위한 과제제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확인 및 의문 질문 2. 차시에 학습할 내용 확인 및 차시 과제 메모하기 	5'		

VI. 결론

본고의 논의는 읽기의 궁극적 목적을 의미의 재구성이라고 보고, 비판적 읽기를 통하여 풍자소설의 의미 파악과정 및 교수-학습 방법의 교육적 의미를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는 풍자소설의 비판적 읽기 과정에서 ‘반성적 회의’를 통해 작품을 내면화하고자 한 것이다. 즉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읽기 과정을 통하여 비판적 읽기 지도, 나아가 창조적 읽기 지도에 토대를 두어 작품을 내면화하고자 한 것이다. 그리고 이해의 필수과정으로서 작품에 대해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설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루어진 비판적 읽기 교육에 대한 연구성과를 살펴보면, 대부분 비문학 작품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고는 문학 작품에 있어 비판적 읽기를 적용시켜, 소설 교육적 측면에서 접근해 보았다. 그러므로 이를 통해 소설 교육의 새로운 방향 모색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와 성과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II장에서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비판적 읽기와 풍자소설의 이론적 성과를 고찰하였다. 여기서는 비판적 읽기를 추론적 읽기 단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으로 전제하였다. 그리고 비판적 읽기를 지식을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닌 질문과 사고의 역동적 과정을 통한 적극적 탐구과정으로 보았다. 그리하여 풍자소설의 비판적 읽기의 이론적 토대를 제시하였다. 또한 비판적 읽기의 지도 내용에서는 문학적 텍스트에 적용 가능한 요소를 추출하였다. 그리고 풍자소설의 이론적 고찰에서는 풍자소설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 『태평천하』, 「치숙」의 풍자적 성격에 대해서 논고하였다.

III장에서는 II장에서 제시한 이론적 토대를 바탕으로 비판적 읽기 전략을 살펴왔다. 구체적인 소설 읽기 전략으로는 비판적 읽기의 준거인, 내적 준거와 외적 준거를 제시하였다. 내적 준거는 내부의 조직원리와 관계된 기준으로서, 글의 표현이나 내용에 대한 비판의 준거로 제시하였다. 또한

외적준거는 글이 존재하는 상황과 관련된 기준으로서, 독자의 배경지식과 관련해 글의 가치를 평가하는 준거로 설정하였다.

IV장에서는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풍자소설의 비판적 읽기 교육의 실체가 이루어졌다. 여기서는 문학교육이라는 측면에서, 내적 준거와 외적 준거에 의한 비판적 읽기 교육의 적용 방안을 모색하였다. 즉 교사의 설명과 시범, 탐구학습을 통한 안내된 활동과 학생주도의 활동을 통한 직접 교수법으로 풍자소설의 교수-학습 과정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므로 본고의 풍자소설의 의미 구현적 특성과 교수 학습전략과 실현성 및 교육적 실체를 살펴본 논의는, 문학 교육의 비판적 제시라는 점에서 교육적 가치를 지닌다고 하겠다.

본고의 논의를 통해 얻을 수 있었던 교육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풍자소설의 비판적 읽기 교육은 학습자의 능동적 이해와 소설의 의도된 방식과 원리의 이해를 통해, 대상을 표현하는 여러 방식에 대해 학습할 수 있게 해 준다.

둘째, 풍자 주체와 대상에 대한 구조적 인식을 통해 바람직한 비판관계의 설정과 타당한 비판 기준과 근거를 제시하는 데 유용한 틀을 제시해 준다.

셋째, 바람직한 인간과 사회의 모색을 통해 교육적 효과와 문학적 소양을 고양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소설의 이해에 있어 내용이 갖는 의미를 탐색하고, 다양한 실천을 통해 적용하고 이해함으로써 작품을 통한 학습자의 내면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문학교육의 방법론은 단순히 교수법의 차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정밀한 이론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본고가 논구한 대상이 다양한 형태의 풍자소설로 분류될 수 있는 작품들 중에서 채만식의 풍자소설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런 까닭에 일련의 다양한 풍자적 작품들을 고찰하지 못했으며, 풍자 소설의 비판적 읽기의 해석 방법을 일반화시키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비판적 읽기를 통한 소설 교육이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텍스트

트에 참여하고, 소설의 깊이 있는 이해와 논의의 방법적 원리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는 의의를 가질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풍자소설에 대한 교육적 접근의 심도 있는 연구가 좀더 다각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비판적 읽기의 교육적 성과를 통한 풍자 소설 교육이 갖는 의미가 보다 확고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 참고 문헌 ■

< 교육 자료 >

- 교육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국어』, 2001.
교육부, 『국어과 교육과정』, 제7차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 1997- 15호
(별책5), 1999.

< 단행본 >

- 국어문학회, 『채만식 문학연구』, 한국문화사, 1997.
구인환, 『소설 교육의 방법』, 한샘, 1992.
——외, 『문학교수·학습 방법론』, 삼지원, 1998.
김준오, 『한국현대장르 비평론』, 문학과 지성사, 1990.
김상욱, 『소설 교육의 방법 연구』, 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6.
김윤식, 『채만식』, 서울대학교 출판부, 문학과 지성사, 1984,
마크팩, 『미관적 사고와 교육』, 환영사, 1989.
박갑수외, 『국어 표현·이해 교육』, 집문당, 2000.
박정운(편), 『채만식- 태평천하』, 대유, 1995.
신헌재외, 『학습자 중심의 국어교육』, 박이정, 1997.
우한용, 『한국현대 소설 구조연구』, 삼지원, 1990.
——, 『현대 소설 담론 연구』, 삼지원, 1996
——, 『소설교육론』, 서울 : 평민사, 1993.
윤병로, 『현대작가론』, 선명문화사, 1974
조남현, 『독서』 고등학교 교과서, 한샘, 2002. ,
한순미, 『비고츠키와 교육』, 교육과학사, 1999.
허재영, 『국어과 교육의 탐색』, 박이정, 2001.
한철우외, 『과정 중심 독서지도』, 교학사, 2001.
한용환, 『소설학 사전』, 고려원, 1992.
『세계철학 대사전』, 교육출판공사, 1985.

- Arthur Pollard, 송명현역, 『풍자(Satire)』,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6.
 Irwin · Baker 저, 한철우 · 천경록 역, 『독서 지도 방법』, 교학사, 1999.
 Paulson Ronald, 『풍자문학론』, 김옥수 역, 지평, 1992.

< 논문 및 연속 간행물 >

- 강금숙, 「한국 풍자 소설의 연구 - 채만식 작품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석사, 1973.
 김기수, 「직접교수법에 따른 중학교 소설 단원의 교육 - ‘소나기’, ‘사랑손님과 어머니’를 중심으로」, 부경대 석사, 2000.
 장덕규, 「채만식 소설의 인물연구」, 성균관대 석사, 1990.
 김민아, 「초등학교 고학년 비판적 읽기 지도 방안 연구」, 『국어교육연구』 13, 춘천교대 석사, 1998.
 김선배, 「비판적 읽기의 특성과 교수 학습 전략 탐색」, 『국어교육연구』 14, 춘천교대, 1996.
 김성수, 「치숙의 서술 방식과 주제의식」, 『인천어문학』, 1985.
 김순복, 「읽기 지도 요소에 관한 연구」, 서울교대 석사, 1996.
 김영선, 「설득적 텍스트의 비판적 읽기 방법 연구」, 서울대 석사, 1999.
 김종혁, 「비판적 사고와 교육」, 계명대 석사, 1989.
 김종현, 「채만식 소설 연구 - 풍자기법을 중심으로」, 중앙대 석사, 1988.
 김호인, 「채만식 소설에 나타난 성격 고찰」, 조선대 석사, 1986.
 노수당, 「채만식 소설 연구」, 인하대 석사, 1989.
 문현옥, 「채만식 소설의 서술방식연구 - 태평천하와 탁류를 중심으로」, 전남대 석사, 1998.
 민용기, 「채만식 풍자 소설 연구」, 원광대 석사, 1986
 노수당, 「채만식 소설 연구」, 인하대 석사, 1989.

- 손예운, 「화자 서술의 특성을 통한 소설 교육 연구」, 서울대 석사, 1993.
- 손은희, 「패러디를 이용한 시 창작교육 연구 -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부경대 석사, 2001.
- 송복승, 「'학습자의 활동'을 중심으로 한 교과 운용에 대하여」, 『국어교육』 연구, 1996
- 우한용, 「채만식 소설의 담론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 1991.
- , 「채만식 문학의 언어와 의미의 지평」, 『민족문화연구논총』 3, 인천대 민족문화연구소, 1996.
- , 「뒤집어 말하기와 바로잡아 읽기 - 채만식의 치숙」, 『독서와 논리』, 1994. 10.
- 유하수, 「채만식의 소설연구」, 전북대 석사, 1987.
- 윤영옥, 「채만식 풍자 소설의 서사기법 연구」, 전북대 석사, 1999.
- 이내수, 「채만식 소설 연구」, 동국대 박사, 1985.
- 이대환, 「채만식의 풍자소설 연구」, 중앙대 석사, 1985.
- 이용규, 「채만식 소설 연구」, 성균관대 석사, 1991.
- 임학수, 「채만식소설 연구 - 전통계승의 양상을 중심으로」, 성균관대 석사, 1987.
- 임경순, 「인물 형상화 양상을 통한 소설 교육 연구 - 채만식 풍자소설을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 1995.
- 이숙안, 「비판적 읽기 책략 훈련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 1996.
- 이대환, 「채만식의 풍자소설 연구」, 중앙대 석사, 1985.
- 조영식, 「중학교 소설사 교육 연구 - 근대 소설사를 중심으로」, 인하대 석사, 1991.
- 전점영, 「비판적 읽기 지도에 관한 연구」, 전남대 석사, 1992.
- 정래승, 「비판적 태도의 교육적 의의 및 형성 조건에 관한 고찰」, 고려대 석사, 1986.
- 정석근, 「채만식 소설의 풍자성에 관한 연구」, 원광대 석사, 1989.
- 정현숙, 「채만식 소설 연구」, 인하대 석사, 1989.

- 지은미, 「소설 교육방법 연구 - 「문학」 교과서에 실린 리얼리즘 소설을 중심으로」, 충북대 석사, 1998.
- , 「채만식과 김유정 문학의 풍자성연구 -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강원대 석사, 1989.
- 최석민, 「비판적 사고와 그 교육적 의의 - Ennis를 중심으로」, 경북대 석사, 1993.
- 최은미, 「소설 교육 방법 연구 - 문학교과서에 실린 리얼리즘 소설을 중심으로」, 충북대 석사, 1998.
- 최정운, 「채만식 소설의 인물유형 연구」, 전남대 석사, 1994.
- 최정삼, 「채만식 작가의식 연구」, 원광대 석사, 1990.
- 최지현, 「문학감상교육의 교수학습모형 탐구」, 서울대 석사, 1998.
- 최향임
———, 「읽기 지도 요소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 1993.
「국어교육에서의 비판적 사고 능력 신장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 1996.
- 한철우, 「국어과 교육의 역할 및 평가 방향 탐색」, 『교육개발』, 통권70호, 1991.
- 한봉희, 「사회과에서 비판적 사고 신장을 위한 연구 - 읽기와 쓰기를 이용하여」, 동국대 석사, 1991.
- 허재근, 「비판적 사고기능 훈련이 고등학교 학습 부진아의 학습 수행 능력 신장에 미치는 효과」, 부산대 석사, 1993.
- 홍석영, 「채만식의 풍자문학 연구 - 장편태평천하를 중심으로」, 서울대, 『선청어문』 23, 1994.